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
0
1
0
년
2
월

2010년 2월
박사학위 논문

박
사
학
위
논
문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수
출
경
쟁
력
한
국
서
비
스
산
업
의
제
고
에
관
한
연
구

연
구

조
인
택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조인택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Services Industry

201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조인택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서갑성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조인택

조인택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제2장 서비스산업의 이론적 배경과 교역현황	9
제1절 이론적 배경	9
1.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9
2.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11
가. 전통적 무역이론(Traditional Trade Theory)	11
나.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13
1) 전략적무역이론	13
2) 내생적 성장이론	21
3) 산업내무역이론	21
다. 서비스분야 이론	23
3.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30
가. 국제경쟁력의 개념	30
나. 국제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
제2절 서비스무역의 의의 및 분류	34
1. 서비스무역의 의의	34
2. 서비스무역의 분류	38
3. 서비스무역과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40
4.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41
5.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43
가. 서비스의 경제화	43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 증대	44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48
라. 산업구조의 변화	49
마. 서비스의 산업화	50
제3절 서비스산업 교역현황 및 무역구조 분석	54
1. 서비스산업 교역현황	54
가. OECD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	54
나. G7 국가의 수출·입 현황	56
다. 한국의 수출·입 현황	58
2.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서비스무역 비교분석	61
가.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 수출 비교	61
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	63
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분석	64
3.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66
가. 고용악화	66
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악화	67
다. 서비스수지 만성적자	68
라. 연구개발 부진	70
제3장 OECD 회원국 내의 한국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73
제1절 분석방법론 및 자료	73
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ed Index: TSI)	74
2. Vollrathe, Ferto and Hubbard RCA	75
3. 세계시장 점유율(World Market Share Rate)	77
4. 무역의존도	77
제2절 OECD 회원국 내의 한국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78
1. 서비스산업 수출 경쟁력 분석	78
2.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 분석	80
3.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분석	82
가. 운수서비스 부문	82

나. 여행서비스 부문	82
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부문	83
라. 건설서비스 부문	84
마. 금융서비스 부문	85
바.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	86
사. 로열티와 라이선스 부문	87
아.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부문	88
자. 기타비즈니스서비스 부문	89
차. 보험서비스부문	90
제3절 OECD 회원국과의 경쟁력 비교분석	91
1. V.RCA를 이용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91
2. F.RCA를 이용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95
제4장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및 정책적 제언	98
제1절 실증분석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99
1. TSI, RCA지수 분석에 따른 비교우위산업의 전략화	99
2.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강화	102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104
4. 서비스업체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전문화	106
5. 신규 수출시장의 확대와 집중화	108
제2절 정책적 제언	111
1. FTA 협상의 전략화	111
2. 통상정책의 체제변화	113
3.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강화	114
제5장 요약 및 결론	116
제1절 요약 및 결론	11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9

〈표 목차〉

〈표 1-1〉 산업 전 분야에 관한 주요 연구	4
〈표 1-2〉 수출경쟁력에 관한 주요 연구	5
〈표 1-3〉 무역구조 등에 관한 주요 연구	6
〈표 1-4〉 전략적 무역이론에 관한 주요 연구	7
〈표 2-1〉 국가 경쟁우위의 결정요인	14
〈표 2-2〉 WTO/GATS의 서비스무역 거래방식	37
〈표 2-3〉 서비스 분류코드	38
〈표 2-4〉 서비스부문과 범위	39
〈표 2-5〉 산업구조 변화표	50
〈표 2-6〉 GNP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율	52
〈표 2-7〉 GNP에 대한 수출의 비율	52
〈표 2-8〉 한국의 경상수지 현황	58
〈표 2-9〉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율	59
〈표 3-1〉 국제경쟁력 연구방법론	73
〈표 3-2〉 한국의 서비스수지 현황	78
〈표 3-3〉 무역특화지수(TSI)을 통한 비교우위 분석	81
〈표 3-4〉 OECD 회원 30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야 경쟁력 비교	92
〈표 3-5〉 G7국가를 제외한 회원국 각국의 비교우위 분석(2007년)	95
〈표 3-6〉 OECD 회원 30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야 경쟁력 비교	95
〈표 3-7〉 G7국가를 제외한 회원국 각국의 비교우위 분석(2007년)	97
〈표 4-1〉 전략 서비스산업의 선정	101
〈표 4-2〉 한국의 서비스분야별 V. RCA와 F.RCA 비교	101
〈표 4-3〉 전략적 산업군의 선정	102
〈표 4-4〉 FTA 발효 이후 투자 변화 추이	112
〈표 4-5〉 무역입국형과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의 비교	114

〈그림 목차〉

〈그림 2-1〉 서비스산업의 위상변화	42
〈그림 2-2〉 한국의 분기별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45
〈그림 2-3〉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	46
〈그림 2-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변화(2007.1/4-2009.2/4)	47
〈그림 2-5〉 기간별·산업별 외국인 투자액 추이	47
〈그림 2-6〉 제조업 설비투자 총지수	48
〈그림 2-7〉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2000~2005)	49
〈그림 2-8〉 OECD 회원국 수출입 현황	54
〈그림 2-9〉 OECD 회원국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수지(2007년)	55
〈그림 2-10〉 G7 국가의 분기별 수출현황	56
〈그림 2-11〉 G7 국가의 분기별 수입현황	57
〈그림 2-12〉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60
〈그림 2-13〉 재화와 서비스 수입의 경제성장 기여율	60
〈그림 2-14〉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비중 순위	61
〈그림 2-15〉 OECD회원국 주요 서비스품목 수출 현황	62
〈그림 2-16〉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 수출입 비교	63
〈그림 2-17〉 OECD 주요국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2007)	64
〈그림 2-18〉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	65
〈그림 2-19〉 경기 순환에 따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수 변화	67
〈그림 2-20〉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68
〈그림 2-21〉 우리나라 경상수지 현황(1995-2009.7)	69
〈그림 2-22〉 1980년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항목 추이	70
〈그림 2-2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71
〈그림 2-24〉 산업구분별 연구개발비 추이	72
〈그림 3-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80
〈그림 3-2〉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특화지수(2000-2007)	81
〈그림 3-3〉 운수서비스업 경쟁력 분석	82

<그림 3-4> 여행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83
<그림 3-5> 커뮤니케이션부문 경쟁력 분석	84
<그림 3-6> 건설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85
<그림 3-7> 금융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86
<그림 3-8>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87
<그림 3-9> 로열티와 라이선스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88
<그림 3-10> 개인·문화오락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89
<그림 3-11> 기타비즈니스 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90
<그림 3-12> 보험서비스 부문 경쟁력 분석	91
<그림 4-1> 주요국의 금융부문 인력 구성	107
<그림 4-2> 한국의 EU 회원국별 서비스교역량 비교(2007년)	108
<그림 4-3> 각 산업별 총생산 추이	109

ABSTRACT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Services Industry

Cho, In-Taik

Advisor : Prof. Seo, Kab-Sung,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esenting export enlargement plan of Korean service industry. Korean service export has cut-offed import by Korean entry barrier, and the demand about foreign service is small in Korea. Looking back over the past fifty years, exports have been a major driving engine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Even at the initial stage, some industries ranging from the wig to the shipbuilding aggressively went after overseas markets. Given that domestic demand was weak, it was no surprise that the Korean economy depended entirely on exports as the sole growth engine.

Evalu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should be made and the service industry of Korea has to plan strategies for expanding overseas. The top prerequisites for this include gaining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les for expanding the service market Under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me and entering into negotiations with foreign trading partners over the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market if necessary, in parallel with getting the whole picture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o find out our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ervice trade, in particular Koreans character, their level of knowledge,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and external attributes.

In addition, strategies by sector need to be formulated to boost exports in the service, which calls for meticulous plans of action including effort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removal of unnecessary domestic regulations, liberalization of the foreign market, and human resource programs aimed at rising as a service powerhouse.

Based on the WTO principles of trade liberalization, Korea should press ahead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 favorable to service exports. Negotiations for opening up the market have to continue with trading partners, accompanied by deep understanding and belief of formats and principles for negotiations adopted by the WTO. Unlike goods, the service sector has issues unique to each area, so a unified approach in the negotiation is not suitable.

Korean Government protected the Korean service market for manufacturing industry growth, and export of service industry did not think importantly. Korean Government developed primary industry and secondary industry for nation development. But, the importance of service industry is embossed by elevation of income level, desire enlargement of life as economy develops. Economy of advanced nation is changing by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than manufacturing industry. But, Korea

reduces light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s developing more. Korean service industry is showing growth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But, Korean service industry is low competitive power than advanced nation and competitor nations. Korean service trade is increasing the export amount but TSI, RCA, SH is low competitive power preferably.

The problem of Korean service industry appeared by employment aggravation, competitive power aggravation of service industry, the service trade chronic deficit, research and development slump, productive capacity decline. So, Korean Government made growth potential expansion, create jobs of high added value, domestic diversion of foreign countries secession service consumption and open-door policy.

According to analysis of this paper, Insurance, banking, computer of Ireland are developing, and Luxemburg is banking, Sweden and Netherlands are loyalty, Switzerland is developed construction, guarantee, banking, computer, Mexico is insurance service, Denmark`s comparative advantage is transport.

For development of Korean service industry;

The first, The policy of Korean Service industry should be solidified than support policy of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should exports through excavation of product that comparative advantage potency is high for improvement of service trade. First of all, Korean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must develop circulation and physical distribution, banking and guarantee, communication service, business service of judicial affairs·accounting·management consulting·engineering·advertisement·design etc.

The second, Korean service industry must reclaim new export market such as China. Chinese service industry developed from 21.9% in 1979 to 39.9% in 2005. Korean service industry need service export for China.

The third, Korean service industry must pursue diversification of trade policy 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trade policy departs in dichotomisch form of traditional liberalism and protectionism and is changing variously by strategic trade policy Because competitive power of industrial America such as aircraft, semiconduct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By such analysis and policy, Korean service industry may be advanced nation with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export enlargement, government policy, global of indust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서비스산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으로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와 관광, 휴양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이 부문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대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으로 제조업과의 연관효과를 지닌 지식서비스인 금융, 보험, 법률, 디자인, 컨설팅 등이 있다. 이는 생산의 중간재로서의 역할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중간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국제경쟁력 약화, 서비스수지의 만성 적자, 국내수요층 해외로 이탈, 서비스재화 소비에 대한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 상호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¹⁾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경제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경공업은 감소하고 제조업은 더욱 발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다행히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열위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구조하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변수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불안한 무역구조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구조하에서도 한국이 10대 무역대국으로서의 입지 강

1) 강성진, 서상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우리나라 FDI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7.10, p.150.

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의 근간은 바로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수출금액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특화지수(TSI), 비교우위지수(RCA), 세계시장점유율(SH)는 오히려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비중이 낮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출액은 미국(70%), 일본(55.5%), 영국(66.9%)에 못 미치는 4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 서비스 산업의 무역구조를 OECD 회원국 30개국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이 되는 정부정책과 학술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연구원, 연구소 등 기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이론과 현황에 대해 고찰한 후 실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OECD Trade in Services Statistics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은 OECD회원국 30개국²⁾이며,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Vollarth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국내문헌에서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Ferto and Hubbard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세계시장점유율, 무역의존도를 중심으로 최근 8년 동안의 우리나라

2)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이상 30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서비스무역의 개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측면,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측면, 국제경쟁력으로 분석하였고 서비스산업의 의의와 분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 G7국가, 한국의 서비스무역 교역현황 및 무역구조분석을 통해 한국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세계시장점유율(SH), 무역의존도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서비스무역의 분야별로 경쟁력분석을 실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5장은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김학민 외(2008)³⁾는 2007년까지 12개 학술지에 수록된 서비스무역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100편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논문은 개념적인 유형분석, 서비스산업의 실태분석, 산업별 서비스화에 대한 실증분석,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연구, 서비스무역의 전략이나 정책 제시,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방안, FTA 관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1>은 서비스산업에 대해 연구·발표된 주요 논문 및 보고서이다. 서

3) 김학민 외, “서비스무역 연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비교연구, 실증분석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1-1> 산업 전 분야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연구년도)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대상
이호건(2008)	문헌연구	서비스산업
Sherman Robinson et al(1990)	CGE	서비스무역 자유화
김주훈 외(2007)	문헌연구	OECD
이건우(2004)	문헌연구	서비스산업
Aaditya Mattoo et al.(2001)	회귀분석	무역자유화
송정훈, 김기훈(2008)	산업연관분석	IT
김휘석 외(2007)	이론연구	OECD
최봉현 외(2007)	RCA	제조업, 서비스업
하봉찬(2008)	문헌연구	OECD
하봉찬 외(2007)	수요함수	서비스산업
이민환, 여택동(2008)	회귀분석	FDI결정요인
황수경(2009)	문헌연구	경쟁력강화 및 고용전략
김주훈, 차문중(2007)	문헌연구	서비스업 각 부문의 경쟁력분석
강태구 외 (2008)	상관분석	정보통신서비스분야 국제합자투자 요인
이상규(2008)	산업연관분석	지식서비스분야의전략적선별
박문서(2007)	문헌연구	한반도 서비스산업비전 및 전략
윤상철(2008)	문헌연구	서비스산업의 수출촉진방안
정준호(2006)	문헌연구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이근 외(2008)	인덱스	한일 서비스산업 생산성 비교
고정민, 김정우(2007)	군집분석	서비스산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Kimura and Lee(2006)	중력모형	OECD 10개국 교역국의 교역
Kox et al.(2005)	생산시장규제지수	EU의 서비스교역과 FDI에 미치는 효과 분석
Lejourand Verheijden(2004)	중력모형	EU(회원국가)와 캐나다(연방간)의 서비스교역
Grunfeld and Moxnes(2003)	중력모형	ECD 22개 회원국간의 서비스무역과 해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과 서비스교역
문병철(2007)	중력모형	FTA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유장희(2009)	문헌연구	서비스전분야에 대한 전반적 산업화전략
Guerrieri and Meliciani(2005)	패널분석,RCA	첨단 제조업에서 생산자서비스와의 연관성 연구

서환주 이영수(2008)	Panel GMM모형, TSI, RCA	생산자서비스의 무역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휘석 외(2007)	구매력평가지수 등	서비스업 생산성 분석을 통한 한국과 OECD회원국 분석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이건우(2009)	전산업연관도지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연관구조 분석
유현선(2009)	문헌연구	국내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 분석
최봉현(2008)	설문조사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제시
이영주 외(2009)	주성분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서비스 특성과 혁신지원체제의 관계분석을 통한 정책제시
김정우(2008)	DEA	서비스산업 생산성 국제비교
Hyun-Hoon Lee and Peter Lloyd(2001)	Grubel-Lloyd	Intra-Industry Trade in Services
고정환(2008)	CGE모형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 : 저자 작성.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표 1-2>와 같이 연구방법이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출경쟁력 분석에 있어서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방법으로써 그동안 RCA지수를 활용한 경쟁력 측정방식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되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RCA지수로 경쟁력을 측정한 연구들은 서동균(1996)⁴⁾, 이기환(1997)⁵⁾, 유창근(2006)⁶⁾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 이외에도 산업내무역지수, 순수출지수 등도 첨가되어 연구방법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4) 서동균,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RCA지수”,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2집, 한국항만경제학회, 1996.

5) 이기환, 『OECD 회원국의 보험산업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 유창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영산논총」 vol.16, 영산대학교, 2006.

<표 1-2> 수출경쟁력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연구년도)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대상
최영섭(2001)	TSI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주경원(2002)	RCA, SH, NEX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장선미(2006)	TSI, 산업내무역지수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분석
권택호, 주경원(2006)	TSI, NEX	한국과 동아시아 무역구조 분석
이성아, 신경수(2007)	TSI, RCA	제조업, 한중일
차장곤(2007)	TSI, RCA, CAC	한·중, 한·러 수출입구조분석
장민수(2008)	TSI, RCA	한국과 독일자동차 산업비교
장민수(2008)	TSI, RCA	한국과 독일 산업 비교
조현승(2008)	RCA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분석
최의현(2009)	RCA	중국 첨단기술의 경쟁력분석
박정동, 김경희(2009)	RCA, 무역특화도 등	중국 WTO 가입과 한·중 경쟁력 분석
최봉현(2009)	문헌연구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분석

자료 : 저자 작성.

무역구조 분석과 관련해서는 <표 1-3>과 같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수출경쟁력과 관련된 연구와의 연속성이 있어 수출경쟁력 연구방법과 비슷한 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타 다른 변수와 요인들을 첨가시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3> 무역구조 등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연구년도)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대상
최의현(2005)	CTB, 무역의존도 등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를 무역의존도로 분석
김태기(2007)	산업내무역지수 등	생산구조와 무역구조의 관계연구
옥우석 외(2007)	산업내무역지수	무역구조가 국제 노동분업, 노동수요구조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최용재 외(2008)	계량모형외생변수 등	한국산업과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 OECD 자료 이용
정상은, 김정우 (2008)	TSI, RCA 등	제조업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한·중 분업구조 연구

자료 : 저자 작성.

<표 1-4>는 본 논문의 주제와 일치하는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정리한 표이다. 전략적 무역이론과 관련된 논문들은 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다. 전략적 무역이론은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이론으로써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정책이다. 즉 이론적 측면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업부문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역정책이나 간접적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업부문과 기업에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후자적인 측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활동이 미약한 상황이다.

<표 1-4> 전략적 무역이론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연구년도)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대상
송의영(1997)	문헌연구	무역정책
권영태(1997)	문헌연구	전략적무역이론 R&D협력 분석
노덕률(1998)	문헌연구	전략적무역이론의 검토
이진우(1999, 2006)	수직차별적분석	전략적무역정책 결정요인분석
임혜란(2002)	문헌연구	미국의전략적무역이론의 검토
김관옥(2002)	비교연구	미국 무역정책 변화연구
고정민(2005)	이론연구	전략서비스산업의 선정과 강화

자료 : 저자 작성.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그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수출경쟁력, 전략적 무역이론의 정책적 적용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 본 논문은 기존 문헌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특히 Vollarth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부문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입측면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경쟁력 우위와 열위를 분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국내에서는 조현승(2008)의 연구

에서 제시된 Ferto and Hubbard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Ferto and Hubbard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입측면까지 고려하며 수출경쟁력 왜곡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무역특화지수와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병행하여 연구되었을 경우 분석면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⁸⁾

7) 조현승,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2008년 12월호, 산업연구원, 2008.12.

8) 본 논문에서는 이후 Vollarth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V.RCA, Ferto and Hubbard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F.RCA로 표기함.

제2장 서비스산업의 이론적 배경과 교역현황

제1절 이론적 배경

1.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최근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것은 무역, 그리고 수출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수출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의 블록화, 지역주의 확산 등 국제경쟁시대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무역협정들을 체결하고 있다. 즉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국제무역이론의 성과물은 국제무역정책과 무역협정이다.⁹⁾ 국제무역정책과 무역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무역이론은 국제경제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제경제학은 국가 사이의 경제적, 금융적 상호의존성을 다룬다. 국제경제학은 한 국가와 세계의 여타 국가 사이의 상품, 서비스, 지불 및 통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러한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이 한 국가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적, 금융적 상호의존성은 국가 사이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및 군사적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이론, 무역정책, 국제수지, 외환시장 및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을 다룬다. 국제무역이론은 무역의 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분석하며, 무역정책은 무역규제의 원인과 효과 및 신보호무역주의를 다

9) Wilfred J. Ethier, "The Thoery of Trade Policy and Trade Agreement: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3, 2007, p.605.

룬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한 국가의 기타 세계에 대한 총지출과 총수입을 측정하며, 외환시장은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제도적 틀이다. 국제무역이론과 정책은 국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인데, 그 이유는 국제무역이론과 정책이 개별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고 있으며 개별 상품의 가격을 다루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제수지는 국민소득 수준과 한 국가의 일반적 물가수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이나 기타의 경제정책과 아울러 총수입과 총지출을 다루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국제경제학의 거시경제학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국제무역은 수출을 통하여 국제경제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urkse(1970)¹¹⁾는 수출은 경제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선도부문이라고 주장하였다. Haberlers(1964)¹²⁾는 국제무역이 경제발전에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과를 지적하였다. 첫째 무역은 과소고용(過少雇傭) 될 수 있었던 국내 자원을 완전히 활용하도록 한다. 즉 개발도상국들은 무역을 통해 불충분한 국내수요로 인해 자원이 미활용되는 생산가능곡선 안의 비효율적인 생산점으로부터 생산가능곡선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 무역은 잉여분출 또는 농산품 및 원자재의 잠재적 초과공급의 탈출구를 의미한다. 이는 특히 동남아시아나 서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였다. 둘째 무역은 시장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소규모 경제의 경공업 생산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실제로 일어났다. 셋째 국제무역은 새

10) 도미니크 살바토레, 『International Economics, Eighth Edition - Vol.1 TRADE THEORY & POLICY』, 시그마프레스, 2009.1.5, pp.7-8.

11) R. Nurkse,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in R. Nurkse, ed.,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p.163-226.

12) G. Haberler, "Comparative Advantag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Trade," *The International Journal Agrarian Affairs*, May 1964, pp.130-149.

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리 및 기타 기술들과의 전파의 통로가 된다. 넷째 무역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한다. 외국기업이 투자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 해외자본은 해외 숙련노동을 수반하게 된다. 다섯째 국제무역은 국내생산자가 해외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탁월한 반독점 무기가 된다. 이것은 다른 제품의 국내생산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중간재 및 반제품의 가격 및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¹³⁾

2.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가. 전통적 무역이론(Traditional Trade Theory)

비교우위를 설명하는 무역이론은 노동생산성과 요소부존도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되는 A.Smith(1776)¹⁴⁾, D.Ricardo(1817)¹⁵⁾,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Steuart(1767)¹⁶⁾의 경쟁우위론, 자국의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수출을 하고 희소하고 값비싼 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Heckscher-Ohlin(1919)¹⁷⁾ 이론, Posner(19

13) 도미니크 살바토레, 전게서, p.391.

14) Smith, A.,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 The Morden Library, 1937.

15) Ricardo, D.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i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Piero Sraffa with M.H.Dobb(ed.), 11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17.

16) Steuart, Sir J.,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A. Miller and T. Cadell, 1776; a revised version was published in the first 4 vols. of *The Works, Political Metaphysical, and Chronological*, of the late Sir James Steuart, 6 vols., London: T. Cadell and Strand, W. Davies(1805); reprinted, New York: Augustus M. Kelly, 1967.

17) Heckscher, E.F.,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Ekonomisk Tidskrift*, 1919.

61)¹⁸⁾의 기술격차이론, Kenen(1965)¹⁹⁾, Keesing(1966)²⁰⁾의 인접자본집약도 이론, Vernon(1966)²¹⁾의 제품수명주기론 등이 있다. 이후 Ethier(1979)²²⁾, Krugman(1979)²³⁾, Lancaster(1980)²⁴⁾ 등에 의한 규모의 경제 및 불완전경쟁을 고려한 산업내무역이론이 대표적이다.

실증분석에서 무역이론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Leontief(1953)²⁵⁾의 헥투오린 이론에 대한 분석 이래로 각국의 무역패턴을 실증분석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²⁶⁾

국제무역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무역발생과 관련하여 가격유인의 기준이 시장가격이나 아니면 생산비나 또는 그 절대수준이나 아니면 상대수준이냐는 것이다. A.Smith(1776), D.Ricardo(1817)는 공통적으로 고전정치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생산비 가치설에 입각하고 있으나 성장의 문제에 중점을 둔 스미스로서는 생산비 절대 수준의 우열이 교역상품의 종류와 교역방향 및 조건, 즉 전체 무역구조를 결정짓는다고 보았으며, 무역은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비수준을 상승시켜 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Posner, M.V.,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ical Change", *Oxford Economic Papers*, Vol.13, 1961, pp.323-341.

19) Kenen, P., "Nature, Capital and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3, 1965, pp.437-460.

20) Keesing, D., "Labor Skills and Comparative Advanta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6, 1966, pp.249-258.

21)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aternational Trade in the Prdo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66, pp.190-207.

22) Ethier, W., "Internationally Decreasing Costs and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1979, pp.1-24.

23)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1979, pp.469-480.

24) Lancaster, K., "Intra-Industry Trade under Perfect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0, 1980, pp.151-176.

25) Leontief, W., "Domestic Producion and Foreign Trade: The American Capital Position Re-Examined", *Proceedings of the Amerienc Philosophical Society* 97, 1953, pp.351-349.

26) 주경원, "기술집약도에 따른 한국제조업의 장기적 수출경쟁력 변화",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2.4, p.2.

한편, 이윤과 임금간 분배의 문제를 리카르도는 상품간 상대적 교환비율이 분배율뿐 아니라 무역구조를 결정한다고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무역 그 자체는 분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단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소득효과로 인한 소비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뿐이나 무역이 상품간 상대적 교환비율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질임금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면 위의 소득효과뿐 아니라 이윤을 상승에 따른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트는 국제무역을 교역국 경제의 총체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바,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급 및 수요조건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각 교역국의 대내적 시장가격의 절대 수준의 차이가 무역구조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결정된 무역구조는 교역당사국간 비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이며,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장의 축으로서의 무역의 역할도 달라진다는 것이다.²⁷⁾

나.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1) 전략적무역이론

전통적인 무역이론은 자유무역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무역이론은 요소부존에 입각한 우위만을 가정하였다. 자국 수요조건, 관련산업과 지원산업에 대한 영향, 정부의 개입, 타국의 수요조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국가경쟁력 분석방법에서 가장 많은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Proter(1990)²⁸⁾의 국가비교우

27) 양홍석, “국제무역이론의 기원: 스미스, 리카도 및 스튜어트 이론의 비교”,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호, 한국경제사학회, 1999, pp.208-209.

28) Porter, M.E. (1990, 1998)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New York, 1990.

위와 비교를 하면 <표 2-1>와 같다.

<표 2-1> 국가 경쟁우위의 결정요인

이론/요인	자국 요소					타국 요소
	요소 부존	수요 조건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조직	정부 역할	
절대우위	○					
비교우위	○					
레온티에프	○					
제품수명주기론	○					
핵서오린	○					
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	○	○	○	○	○	○

자료 : 저자 작성.

이러한 전통적 무역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상 198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어온 신무역이론도 무역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으로써 무역당사국들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기본명제는 부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무역이론의 대두를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완전부정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춘 부분수정 또는 개선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무역이론은 자유무역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그 테두리 안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교역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국가는 수입품에 적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작은 국가에서도 국내시장규모가 왜곡되어 있어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있는 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시장구조의 왜곡이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는 항상 예외적인 경우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구조의 왜곡은 현대 무역에 있

어서 예외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 무역 형태의 상당 부분은 해당국가의 고유한 비교우위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등에 의해서나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대두된 신무역이론에서는 시장구조의 왜곡이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와 같이 예외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이론의 기본골격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신무역이론은 전통적 무역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완전경쟁의 시장구조에서는 지대란 존재할 수가 없지만 신무역이론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진입환경이 엄연히 존재하여 정부는 무역정책을 활용하여 자국에게 더 큰 몫의 지대를 확보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술혁신과 외부경제성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증가시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무역정책으로 국가의 부가 증대되고 산업이 성장한다는 논리이다.²⁹⁾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가정하는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르면 일국의 경제구조는 생산비용에서 타국에 비해 강점을 갖는 산업에 전문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생산비용은 각국의 생산성(Ricardo, 1817)이나 요소부존도(Heckscher, 1919, Ohlin, 1933)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각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게 된다. 즉 기업은 요소부존도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한 효율성 또는 생산비용의 차이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특정 국가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간 산업구조는 전문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역비용(무역장벽, 운송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무역비용이 크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입지하고자 할 것이고 각국의 생산구조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일 것

29) 윤우진,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 보조금정책의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pp.13-18.

이다. 한편 전통적 무역이론의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나 실제 무역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무역이론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산업간 무역이 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역은 동일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동일한 산업 내에서 차별적인 상품들 간의 교환, 즉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통적 무역이론의 몇 가지 가정을 수정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무역이론(Krugman, 1980, Helpman and Krugman, 1985, Krugman and Venables, 1990)이다. 신무역이론에서의 주된 가정은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그리고 불완전 경쟁(독점적 경쟁)이다. 규모의 경제는 단위 비용을 낮추므로 무역비용이 낮아진다면 규모의 경제 특성을 보이는 산업은 지리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할 것이다. 이 때 기업들은 시장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지역은 주요 생산지이자 순 수출지가 된다. 즉 경제통합은 집중화와 전문화를 낳게 된다.³⁰⁾

신무역이론은 1978년과 1985년 사이에 경제학자들에서 창안된 것으로 대부분의 세계 무역이 밀과 같은 재화라기보다는 항공기와 같은 재화를 거래한다고 본다. 각 나라는 일정 시점에서 일군의 광범위한 토지, 숙련 노동, 자본, 기후 및 일반적인 기술 경쟁력 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은 각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산업을 일정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자원이 생산 품목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비교우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역사의 변덕에 따라 동작하게 된, 자체 강화적인 유리한 순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측면에서 무역은 자원을 반영한다. 고도의 숙련 노동력을 가진 나라는 일반적으로 비숙련 노동에 비해 숙련 노동의 비율이 높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반대가 되는 재화

30) 정세은, “한·중·일 제조업의 전문화 및 집중화 추이”,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4, pp.28-29.

를 수입한다. 그러나 한 나라가 수출하는 재화가 정확하게 그 나라의 자원만으로는 결정될 수는 없다.³¹⁾

이러한 신무역이론은 Brander & Spencer(1995)³²⁾가 정형화시켜 전략적 무역이론(strategic trade theory)으로 모형화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정부가 국내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항공기산업의 경우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원리에 의해 만약 2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산업분야 투자에 뛰어들 때 그 이윤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는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의 근본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은 필요이상의 규모에 투자하고 경쟁자에 대해 가격전쟁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위협하거나, 또는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쟁기업들에게 가격이 너무 낮아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초기 단계에서 만일 경쟁기업 국가의 정부가 경쟁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경쟁기업은 후발기업이라도 경쟁을 포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선발기업이 속한 국가로부터 후발기업이 속한 국가로 부가 이전된다.³³⁾

전략적 무역정책은 무역정책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개념정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Cohen et al(1996)³⁴⁾ 등에 따르면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개입을 통해서 자국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부개입방식에는 정부보조금 지

31)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향연』, 도서출판 부키, 2009.4.10, p.279.

32) Brander, J. A. and Barbara J. Spencer,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 (1/2), 1985, pp.83-100.

33) 임혜란,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이념의 역할: 미-EU 통상마찰의 재조명", 『EU학 연구』 7권, 1호, 한국EU학회, 2002, pp.104-105.

34) Cohen, Stephen, Joel Paul, and Robert Blecker, *Fundamentals of U.S. Foreign Trade Policy: Economics, Politics, Laws, and Issues*. Boulder: Westview press, 1996.

원 방식 외에 상대국가의 다양한 정부개입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상대국에 보복을 취하는 형태의 방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Milner and Yoffie(1989)³⁵⁾에 따르면 전략적 무역정책은 상대국가의 시장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자국의 시장도 무역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Richardson(1990)³⁶⁾과 Tyson(1992)³⁷⁾등도 상대국이 그들의 시장을 자국 상품에 대해 개방하는 정책이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⁸⁾

전략적 무역정책은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정부도 기업과 같이 국제적인 경쟁전략을 구사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무역정책은 특정국가로 하여금 보다 큰 몫의 초과이윤을 확보하도록 하고 외부경제효과를 누리도록 하며,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하여 초과이윤을 낚는 특정산업을 더욱 크게 확보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유지향적 조치가 국민후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부개입주의적 전략적 무역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정책은 전략적인 산업부문을 지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³⁹⁾

전통적으로 많은 무역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을 하나의 중요한 가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완전경쟁이라는 가정에 부합하는 시장이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생산자들은 자기 자

35) Milner, Helen and David B. Yoffie, "Between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Strategic Trade Policy and a Theory of Corporate Trade Dem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 1989.

36) Richardson, J. David, "The Political Economy of Strategic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1990.

37) Tyson, Laura D.,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38) 김관욱,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2.9, p.293.

39) 권영태,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 연구개발(R&D)협력 촉진정책", 「경제연구(구 경제학논집)」, 제6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1997, pp.389-392.

신을 순수한 가격결정자(price taker)로 여기지 않는다.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된 전략적 무역정책의 새로운 이론은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한 국제생산조직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독과점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주체의 행위와 함께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연구하는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⁴⁰⁾

전통적 무역이론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인 산업부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신무역이론은 전략적 산업부문의 존재를 인정한다. 규모의 경제, 경험의 우위성이 지니는 경제적 효과, 혁신 등으로 초과이윤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산업부문의 생산요소가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술적인 경쟁에 따른 혁신은 특정 산업부문이 외부경제효과를 지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생산자들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완전한 사회적 가치의 크기로 받지 못하는 시장불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Baldwin(1992)⁴¹⁾, Krugman(1992)⁴²⁾는 초과이윤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무역이론은 특정국가가 보다 큰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수의 공급자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입주의적 무역정책으로서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전략적 무역정책이 해외 경쟁상대국의 희생을 통해 독점이익을 자국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국가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Brand-Spencer는 수출보조금이 국내기업이 더 많은 산출량을 선

40) 박종국, “산업조직이론을 응용한 전략적 무역정책과 시의일관성”, 「경제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2, pp.189-190.

41) Baldwin, R. E, "Are Economists' Traditional Trade Policy Views Still Vali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30(2), June, 1992, pp.804-829

42) P. R. Krugman, "Does the new trade theory require a new trade policy?," *the world Economy* *XV*, 1992.

43) 권영태, 전제논문, pp.387-389.

택하도록 유도하고 외국기업은 이에 반응하여 더 적은 산출량을 선택하도록 한다. 하지만 두 기업이 서로 약간 다른 상품을 가지고 산출량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는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성립되지 않으며, Brand-Spencer는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이 각각 하나라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숫자는 무역정책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이 산업에서 경쟁하는 자국기업의 수가 외국기업의 수보다 많다고 가정하면 이때 수출보조금이 모든 자국기업들에게 지급된다면 외국기업의 산출량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자국기업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서로의 이윤을 잠식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다.⁴⁴⁾

그러나 Busch(1999)⁴⁵⁾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항공기, 반도체, 고화질 텔레비전, 로봇공학 경우를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의 영역일지라도 국가의 전략적 개입여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략적 무역이론의 가정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어느 경우에 개입하고 어느 경우엔 개입하지 말아야하는지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2가지인데, 첫째는 소비변수(consumption variable)로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으로부터 긍정적 외부효과를 국가경제체제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즉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이 전방산업 및 후방산업과 연계되어 전체 경제의 발전으로 파급(spill-over) 될 수 있는냐의 문제가 정부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변수라는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내부화(internalization)의 문제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국가경제의 밖으로까지 유출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국 국가가 전략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소비의 정도가 높고 내부화 역시 높은

44) 송의영, “전략적 무역이론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함의”, 「97 국제학술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1997, pp.29-31.

45) Busch, Marc L., *Trade Warriors: State, Firms, and Strategic Trade Policy in High-Technology Compet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경우에만 개입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같은 첨단산업일지라도 두 가지 변수의 여하에 따라 정부의 불간섭 역시 결정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⁶⁾

2) 내생적 성장이론

Romer(1986)⁴⁷⁾와 Lucas(1988)⁴⁸⁾에 의해 국제무역과 장기 경제성장 및 발전은 양(+)⁴⁹⁾의 관계가 있다는 설득력과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개발도상국이 개방 정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로 인한 이익이 증가한다. 셋째,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킨다. 넷째, 가격왜곡을 축소시키고 국내자원의 부문간 배분이 효율적으로 된다. 다섯째, 중간재의 사용에서 전문화와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여섯째,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보다 신속하게 도입된다. 그러나 Pack(1994)⁴⁹⁾은 이러한 연구가 실제적으로 무역이 어떤 경로로 높은 장기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개방이 고도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⁵⁰⁾

3) 산업내무역이론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서 국가 간 무역은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46) 임혜란, 전계논문, p.110.

47) P. M. Romer,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ober 1986, pp.1002-1037.

48) R. E. Lucas,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une 1988, pp.3-42.

49) H. Pack, "Endogenous Growth Theory: Intellectual Appeal and Empirical Shortcoming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Winter 1994, pp.23-44.

50) 도미니크 살바토레, 전계서, p.392.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무역 동향을 보면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산업간무역보다는 동일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일 산업에서 어떤 상품은 수출하고 어떤 상품은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을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고 한다.

산업내무역은 Grubel and Lloyd(1975)⁵¹⁾에 의해 산업내무역의 발생원인,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틀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Grubel and Lloyd의 선구적 연구 이후 급속히 발전한 산업내무역이론은 산업내무역의 발생 원인을 주로 제품차별화, 규모의 경제에서 찾고 있다. 즉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가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일국은 여러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보다는 한 가지 상품에 특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종 산업 내의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Grubel and Lloyd(1975)를 비롯하여 Loertscher and Wolter(1980)⁵²⁾, Greenaway and Milner(1984), Balassa and Bauwens(1998)⁵³⁾ 등에 의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무역상대국 간의 요소부존도가 비슷할수록, 시장규모가 클수록, 무역장벽이 낮고 운송비용이 적을수록,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많을수록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산업내무역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제품차별화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차별화를 다시 세분하여 동종 산업에서 제품의 질은 같으나 기능과 디자인 등이 차이가 나는 상품 간의 무역인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제품의 질에서

51) Grubel, Herbert G. and Lloyd, P.J.,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Macmillan, 1975.

52) Loertscher, R. and F. Wolter,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ross Indus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16, 1980, pp.281-293.

53) Ballassa, Bela and Luc Bauwens, *Changing Trade Patterns in Manufactured Goods: An Econometric Investigation*, North Holland, 1998.

도 차이가 나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구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큰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단순히 동종 상품의 무역으로만 산업내무역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세분함으로써 산업별·국별 특색을 더욱 명확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Greenaway and Milner(1984)⁵⁴⁾는 영국의 162개 주요 무역대상국의 1988년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직적·수평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국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시장규모 및 관세동맹 가입 여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측과는 달리 요소부존도 차이와 수직적 산업내무역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게 Dukin and Krygier(2000)⁵⁵⁾는 1989~1992년 기간에 미국의 20개 OECD 국가와의 산업내무역지수를 기초로 하고 실질임금의 대용지표로 사용하여 요소부존도의 차이와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양(+)⁵⁶⁾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⁵⁶⁾

다. 서비스분야 이론

Fisher(1935)⁵⁷⁾와 Clark(1940)⁵⁸⁾이 주장한 전통적 견해로는 소득증가에 따

54) Greenaway, David, R.C. Hine, and C. Milne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Horizontal and Vertical Trade in the UK,"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30, 1994, pp.77-100.

55) Durkin, Joha T. and M. Krygier, "Differences in GDP Per Capita and the Share of Intraindustry Trade: The Role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8(4), 2000, pp.760-774.

56) 이준엽, "한·중·일 산업내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 10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pp.211-213.

57) Fisher. Allan G.GI, *The clash of progress and security*, London, 1935.

58) Calrk, Colin,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London, 1940.

라 소비구조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이는 재화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반면 서비스는 고급재로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견해에 따르면 소득증가로 커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도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 이론은 Baumol(1967)⁵⁹⁾ 등이 주장한 생산성격차가설(cost disease hypothesis)로 경제의 서비스화는 전통적 견해가 주장하듯이 소득증가에 따른 최종수요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기보다는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과 그렇지 못한 서비스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자원이동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 내에 발전적인 제조업과 정체적인 서비스산업이 있는 경우 두 산업간 생산성 격차만큼 제조업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용과 상대가격은 상승함으로써 경쟁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서비스수요의 곡선 자체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경제구조적 변화에 의해 서비스화가 진전된다고 보는 외생적수요충격가설이다. Fixler and Siegel(1999)⁶⁰⁾와 Raa and wolff(2000)⁶¹⁾은 서비스산업 중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종래 제조기업 등이 자체 생산하던 서비스 활동이 외부 전문기업으로 분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59) Baumol, William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7, Issue 3, 1967, pp.415-426.

60) Fixler, Dennis J. and D. Siegel,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e*, No.10, 1999, pp.177-194.

61) Raa, Thijs and Edward N. Wolff, "Outsourcing of services and the productivity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in the 1980s and 1990s,"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2000-32, Tilburg University, 2000.

Fuchs(1980)⁶²⁾, Inman(1985)⁶³⁾ 종래 가게내에서 주로 생산되어 시장경제 활동으로 잡히지 않던 여러 서비스활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시장에서 구매됨에 따라 가게의 서비스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Inman(1985)에 따르면 1929~1965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증가의 31%가 외생적 수요 충격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1966~1981년 기간 중에는 비중이 69%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 가설은 Wood(1995)⁶⁴⁾, Freeman(1995)⁶⁵⁾의 연구로서 선진국과 후진국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제조부문이 후진국으로 이전되어 선진국에서 산업공동화가 초래되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산업공동화가설이다. 이에 대해 Rowthorn and Ramaswamy(1997)⁶⁶⁾는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교역규모는 선진국 경제규모에 비해 작기 때문에 선진국-후진국간 교역이 선진국의 취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하였다.

생산성격차가설과 산업공동화가설은 경제의 서비스화를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비재서열가설과 외생적충격가설은 경제구조가 재화생산에서 서비스생산 위주로 실질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다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⁶⁷⁾

62) Fuchs. Victor R., "Economic growth and the rise of service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No.486, 1980.

63) Inman, R. P., *Managing the the service economy: prospects an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5.

64) Wood, A., "How trade hurt unskilled worker,"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3, 1985, pp.57-80.

65) Freeman. R. B., "Are your wages set in Beij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3, 1985, pp.15-32.

66) Rowthorn, R. and R. Ramamswamy, "Deindustrialization-its causes and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97-42, 1997.

67) 김현정, 「서비스산업 비중상승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구조변화와 지속성장과제』, 한국은행, 2008.4.3, pp.255-257.

Katouzian(1970)⁶⁸⁾은 성장률 차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분류하였고, 쇠퇴하기 쉬운 전통적인 서비스산업과 경제발전과정에서 성장하였다. 서비스산업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신서비스, 구서비스, 보완서비스 등 3개로 구분하였다.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기준도 있다. Browning and Singelmann(1978)⁶⁹⁾은 서비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기능, 서비스 시장 등의 기준을 혼합한 4가지 분류를 제시하였는데¹⁾, 이는 OECD가 서비스 고용 등을 분석할 때 이를 사용할 정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이다. 이후 Elfring(1988)⁷⁰⁾은 Browning and Singelmann(1978)의 분류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16개의 업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Marshall and Wood(1995)⁷¹⁾는 서비스 제공 시장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수요자서비스, 혼합서비스, 공공서비스 4가지로 분류하였다. 중간수요 혹은 최종수요와 함께 정부수요를 고려하여 분류하였는데, 첫째,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는 다른 기업의 중간수요로 사용하는 서비스, 둘째, 수요자서비스(consumer service)는 최종수요로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 셋째, 혼합서비스(mixed service)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동시에 혼용하는 서비스, 넷째,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정부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분류방법 중 비교적 최근의 분류방법으로 기술 및 혁신 수준에 따른 분류가 등장하였다. Porat(1977)⁷²⁾은 1차, 2차, 3차 산업에 정보부문을 추가

68) Katouzian, H.,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Sector: A New Approach*, Oxford Economic Papers, November 1970.

69) Browning, H. L., and Singelmann, J.,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Labour Force: The Interac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Politics and Society*, Vol.8, 1978, pp.481-509.

70) Elfring, T.,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dlershot, UK: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8.

71) Marshall, J. N., and Wood, P. A., *Services and Space: Key Aspects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New Yor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995.

72) Porat, M. U., "The Information Economy: Definition and Measurement,"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Special Publication*, 77-12(1), Washington: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1977.

하여 이를 4차산업(quaternary)으로 분류하였다. 1차산업은 농업 및 수산업, 2차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 3차산업은 정보산업과 관련 없는 서비스산업, 4차산업은 정보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정보통신 및 혁신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산업을 분류한 것이다. 이어서 Miles(1993)⁷³⁾는 기술과 혁신의 사용정도에 따라 3개로 구분하였다. 첫째, Physical 서비스(운수, 저장, 도소매 등)로 Facilities, 상품 및 사람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제조업의 혁신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둘째, Human or Person-centered 서비스(의료, 교육, 복지, 개인, 숙박음식 등)로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스(의료, 교육, 복지) 및 개인 소비자 서비스(개인서비스, 호텔, 음식점)를 의미한다. 셋째, 정보(information)서비스인데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의 전송(영화, 방송)과 특정한 수신자에게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 제공(통신, 금융서비스), 정보를 해석하고 생산하는 지식서비스(회계, 광고, 마케팅, 컨설팅)로 구분된다. 특히 정보서비스는 IT를 다른 산업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군이며 소비자 인터페이스 부문에서 많은 혁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한편, Evangelista and Savona(1999)⁷⁴⁾는 이노베이션 및 성과 원천 관점에서 구분하였다. 서비스산업을 기업의 혁신성과, 혁신활동의 특징, 혁신을 일으키는 지식기반, 혁신 상호작용의 패턴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는 크게 혁신적이지는 않고, 제조업 등의 발달된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인 Technology Users Services, 서비스내, 혹은 타부문에 기술적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구개발과 디자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

73) Miles, I., "Service in the New Industrial Economy," *Futures*(July/August), 1993, pp.653-657.

74) Evangelista, R., and Savona, M., "Patterns of Innovation in Services: The Results of the Italian Innovation Survey," Paper presented to the 7th Annual RESER Conference, Berlin, October 8-10, 1999.

업인 과학기술기반(Science and Technology-Based Services: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컴퓨터 등)서비스, 혁신이 고객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 및 노하우 개발이 중요한 서비스군인 Interactive and IT Based Services(광고, 은행, 보험, 호텔, 교역, 운수장비 정비 등), 내부 혁신노력이 강하고 고객의 지식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혁신적이며 다양한 기술적인 니즈와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기술적 대안을 제공하는 서비스군인 Technology Consultancy Services(기술컨설팅)로 나누었다.⁷⁵⁾

서비스부문 확장의 원인과 그것이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Baumol(1967)의 구조적 부담 가설(cost disease hypothesis)에서부터 출발한다. ‘구조적 부담’ 가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등성장하에서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는 성장산업(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정체산업(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결과 노동의 산업 간 재배분이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Baumol(1967)⁷⁶⁾의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자본집약적이지 않고 혁신과 지식 축적이 낮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Oulton(2001)⁷⁷⁾, Fixler and Siegel(1999)⁷⁸⁾, Wolf(2005)⁷⁹⁾ 등은 모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서비스 생산이 최종재 수요만이 아니라 중간재 수요를 위해 생산된다면 Baumol(1967)이 예측하는 결과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

75) 고정민, 김정우, “특성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제16집 제2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08.6, pp.98-99.

76) Baumol, W.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Issue 3, 1967, pp.415~426.

77) Oulton, N., “Must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Vol. 53, No. 4, 2001, pp.605~627.

78) Fixler, D. J. and D. Siegel,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10, 1999, pp.177~194.

79) Wolf, A.,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OECD, 2005.

음을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 생산이 상품 생산과 보완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서비스부문의 확장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이러한 고부가가치 부문의 성장이 지배적이라면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구조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고부가가치화’ 가설). ‘구조적 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은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서비스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부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업종도 존재한다.

결국 서비스산업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⁸⁰⁾

Guerrieri and Meliciani(2005)⁸¹⁾는 생산자서비스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1992~1999년 기간의 11개국(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는 협의로 사업서비스만을 포괄하거나, 포괄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서비스만이 아니라 통신, 금융 및 보험, 컴퓨터와 정보 그리고 특허권 등 사용료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경쟁력 및 특화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생산자서비스의 해당 국가 수출에서의 비중과 분석대상 11개 국가의 생산자서비스 수출 중에서 해당국가 생산자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국내 제조업으로부터의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intermediate demand)와 국내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 노동비용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80) 황수경,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정책과제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 한국개발연구원, 2007, pp.96-97.

81) Guerrieri Paolo and Valentina Meliciani,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producer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16, 2005.

Technology) 확산의 정도를 선택하였다. 추정결과 제조업으로부터의 서비스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경쟁력 및 특화에 있어서 결정적임을 밝혀냈다. 즉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고기술 제조업의 발전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임을 밝혔다.⁸²⁾

3.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가. 국제경쟁력의 개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978)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여 획득한 무역성과로서의 국제경쟁력과 무역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변동과정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구분하였다.⁸³⁾ 국제경쟁력 평가보고서로 유명한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나 국제경영개발원(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국제경쟁력 정의를 내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경쟁력을 1인당 국내총생산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 즉 생활수준을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국제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 경쟁력은 자산과 프로세스, 매력성과 공격성, 세계경제와 국내에서의 지역경제를 각각 관리하고 또 이들의 관계를 경제사회적 모델로 통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

82) 최봉현 외,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8.12, p.64.

83) OEC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Outlook. Paris: OECD publishing, 1978.

하였다.⁸⁴⁾

나. 국제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Welch and Loustarinen(1988)⁸⁵⁾, Calof and Beamish(1995)⁸⁶⁾에 의하면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는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전략과 자원 그리고 체제 및 조직을 국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국제적인 기업운영 형태에 점진적으로 연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Furino(1988)⁸⁷⁾는 경쟁력(competitiveness)이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경쟁상대가 존재해야만 이에 대응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결정 또는 수용태세 여하에 따라 이쪽의 이득행렬 (pay-off matrix)이 영향을 받는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경쟁력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개념은 경쟁주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수준의 경쟁력, 산업수준의 경쟁력, 국가수준의 경쟁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경쟁주체의 경쟁대상의 범위를 국제적 범위까지 확대하여 특히 외국의 경쟁상대와 견줄 때에 이를 국제경쟁력이라고 부른다. 요즈음의 경쟁력 개념은 국제화, 세계화를 반영하여 국제경쟁력 개념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은 기업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의미한다. 국가경쟁

84) 백영하, 박재욱, “한국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결정요인”, 「한국의류학회지」 제 32권 제3호, 한국 의류학회, 2008, p127.

85) Welch, L.S. and R. Loustarinen, 'Internationalization: evolution of a concept', in P.J.Buckley and P.N. Ghauri (e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rm: A reader*, London: Dryden, 1988

86) Calof, J. and P. Beamish, “Adapting to Foreign markets: Explaining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 1995.

87) Furino, Antonio, e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Global Econom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력은 국가간의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경쟁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은 어떤 부문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기술의 국제경쟁력, 노동의 국제경쟁력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국제경쟁력 개념을 이해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과 평가요인의 구분이다.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원천)은 사전적(exante)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고, 평가요인(결과)은 사후적(expost)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국제경쟁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결정요인이든 평가요인이든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은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기업경영자에게는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 요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천을 규명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현재윤 외(1989)⁸⁹⁾는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하에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국제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정도 및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국제화는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전략과 자원 그리고 체제 및 조직을 국제환경에 적응해가는, 국제적인 기업운영 형태에 점진적으로 연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 국제화라는 개념의 논의는 아담 스미스(A. Smith)나 리카르도(D. Ricardo)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절대우위의 생산비로 리카르도는 비교우위의 생산비로서 국제적인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했는데 이러한 작업이 고전적 국제무역

88) 윤영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韓國行政研究』 제4권 제1호, 韓國行政研究院, 1995, pp.2-3.

89) 현재윤 외,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산업연구원, 1989.

이론의 기초를 정립하였으며 국제화에 대한 논의의 시초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데 반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인 접근은 기업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 of firms)에 기초를 두고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개념적으로 정립하려는 경영학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⁹⁰⁾

조동성(1999)⁹¹⁾는 국제경쟁력의 이론적 연구는 국제무역이론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전적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요소부존도, 천연자원, 인적자원, 기술, 지식, 국내수요의 크기 등의 거시경제 차원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우위(Advantage)라는 단어를 사용해 경쟁력을 표현하였다. 전통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국가의 무역 이익이 상대 국가의 무역 손실 때문에 상쇄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처럼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이 이론 경제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Porter(1985)⁹²⁾는 경쟁우위는 본질적으로 한 기업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우월한 가치는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 또는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Porter는 가격이 우위와 차별성이 경쟁우위에 있어 기본적인 두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우위나 차별화우위를 가진 기업이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겠지만 Ma(2000)⁹³⁾는 Porter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우위 자체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며, 궁극적인 성과 변수로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⁹⁴⁾

90) 이준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전략 및 정책 시사점”, 「기본연구 05-21」, 중소기업연구원, 2005.12, pp.17-18.

91) 조동성, 『국가경쟁력: 선진국으로 가는 길』, 매일경제신문사, 1994.

92) Porter, M.E., *The competitive Advantage*, NY: The Free Press, 1985.

93) Ma, Hao, “Competitive Advantage and Firm Performance,” *Competitiveness Review*, Vol.10, No.2, 2000.

제2절 서비스무역의 의의 및 분류

1. 서비스무역의 의의

서비스에 관한 개념과 정의가 분명해진 것은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종래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에 없던 서비스 분야를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한 때부터이다. 다자간 교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법적으로 두 개의 분리된 협약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GATT 기본틀 안에서의 상품 교역에 관한 협약이고, 둘째는 푼타델에스테 회의에 참석한 이해국 간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약이다. 각각의 협약들은 개별 기구인 상품협약 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과 서비스 협약 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 협약들은 모두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협약들은 또한 각료들에 의해 수립된 우루과이 선언문의 공통 강령하에 있다. 따라서 이 두 협약들은 법적으로는 분리되지만 기능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⁹⁵⁾

무형성, 동시성, 소멸성 등의 특징을 가진 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 되면 이를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에서 매매 대상을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할 때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이라 무형의 용역을 생산하는 것을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서비스산업, 서비스 기능이나 서비스 제품이 국내외 거주자에게 교역되는 것으로 서비스무역을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조항에서 외화의 지급이나 영수 등을 조건으로 행해지는 국내거주자와 해

94) 이철, 이광재,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요인과 수출성과의 관계”,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8, pp.51-52.에서 재인용.

95)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7, pp.90-92.

외거주가 간의 용역⁹⁶⁾의 수출 또는 수입을 서비스무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무역은 제조업과 비교해서 제품의 특성, 수출형태 등이 더 복잡하다. 즉 서비스는 제조업 제품과 서비스 기능의 중간에 속하는 것으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과 같이 도면, 서적, 파일 등의 형태로 수요자에게 제공되지만 특정한 계량단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이 제품의 통관, 선적, 환어음, 결제 등 세관, 은행 등 공적인 창구를 통하여 수출과정이 모니터링되는 반면 서비스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이 결정되고 또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제품이나 무형의 기능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수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⁹⁷⁾

서비스(Service)라 할 때 이는 “가령 노동, 기술 또는 자문과 같이 인간의 노력 형태를 띤 무형의 상품” 이라든지 “시장에서 구매·판매되는 모든 무형적제품” 또는 “재화가 아닌 무형의 경제재의 생산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⁹⁸⁾

물품무역의 프로세스는 거래관리 차원의 흐름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대금결제방식별 또는 거래대상 품목별로 변형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품무역 이외에 금융, 운수, 여행, 건설, 정보통신 등 서비스상품의 국제거래를 의미하는 서비스무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9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 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97) 최봉현, 박정수,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KIET 산업경제」 2009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09.4, pp.4-5.

98) 유진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15

프레임 속에서 그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서비스의 국경이동형으로, 외국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등은 국경이동형 서비스무역의 예가 된다.

둘째,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로의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해외소비형으로, 해외관광, 해외유학, 환자의 해외치료 등은 해외소비형 서비스무역의 유형이다.

셋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제를 통한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형이다.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을 통한 거래는 상업적 주재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을 의미하는 자연인 주재형이 있다. 외국인 교원이 국내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우리나라 본사 직원의 해외파견으로 외국기업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 유형의 서비스공급이다.⁹⁹⁾

여기서 WTO의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시한 서비스의 공급 형태적 분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GATS는 서비스를 ① 1종 서비스: 국경을 넘는 서비스, ② 2종 서비스: 타국에 가서 구입하는 서비스, ③ 3종 서비스: 주재국에 상업적 기업 설치 및 영업 ④ 4종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등 네 가지로 공급형태를 나누고 있다. 국경을 넘는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전화 혹은 우편수단을 통해 회원국간에 서비스가 넘나드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금융, 국제건축 서비스, 국제정보제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해외 서비스 소비는

99) 박문서,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1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43-44.

관광객이나 의료환자와 같이 수요자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급업체의 이전 경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타국에 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편없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호텔이 연계시설을 해외에 구축하여 영업하는 것이 좋은 예다. 또 자연인의 이동은 회계사,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이 타국을 방문하여 타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GATS는 이전대상국 내의 시민권제도, 영주권제도, 출입국관리제도 또는 기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¹⁰⁰⁾

<표 2-2> WTO/GATS의 서비스무역 거래방식

형태	유형	국제수지	WTO/GATS 제1조
Mode 1	국경 이동형	운수, 커뮤니케이션, 보험, 금융, 특허권 사 용료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Mode 2	해외 소비형	여행	일국 내에서 타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Mode 3	상업적 주재	급료 및 임금	일국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Mode 4	자연인의 이동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 오락	일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국내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자료: WTO와 BOP(Ballance of Payment), IMF 2005의 자료로 재인용.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 장소에서 만나 거래를 성립시킨다는 점이다. 둘째로 서비스는 시간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즉 서비스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미리 생산(공급)할 수가 없다. 셋째로 서비스는 일반 재화(상품)와 달리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재화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하여 대량생산체제로 동일한 규격과 품질의 공급이 가능하나 서비스의 경우

100) 유장희, 전계서, p.27.

공급자의 인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규격, 동일한 품질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¹⁰¹⁾

2. 서비스무역의 분류

OECD에서는 서비스분야를 11개 분야로 세분화하였다.<표 2-3>참조). 이러한 분류는 WTO, UN, OECD와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분류코드로 사용되고 있다.

<표 2-3> 서비스 분류코드

1. Transportation
2. Travel
3. Communications services
4. Construction services
5. Insurance services 5.1 Life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5.2 Freight insurance, 5.3 Other direct insurance, 5.4. Reinsurance, 5.5 Auxiliary services
6. Financial Services
7.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
8. Royalties and license fees
9. Other business services
10.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11. Government services, n.i.e

자료 : UN et al, (2002),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pp.30-32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무역의 범주에서 정부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10개 부분을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표 2-4>는 서비스부문별 범위를 정리한 표이다. <표 2-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서비스는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원조사절단, 해외주재의 정부운영 관광, 정보, 흥

101) 유장희, 전게서, pp.26-27.

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수출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표 2-4> 서비스부문과 범위

서비스부문	서비스 범위
운송서비스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한 여객 및 재화의 수송, 선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포괄
통신서비스	우편 및 송달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음성, 영상, 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신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제공된 통신서비스관련 유지보수)
보험서비스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서비스, 기타 형태의 원수보험서비스(생명, 손해보험 포함)와 재보험 관련 서비스도 포함.
건설서비스	건설서비스는 건설사와 그 직원이 일시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치작업에 대한 수입을 포함. 그러나 해외자회사 또는 특정요건을 갖추어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비법인 현지사무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금융서비스	신용장, 신용한도, 금융리스서비스, 외환거래, 소비자신용, 기업신용서비스, 중개서비스, 증권인수서비스, 각종 헷지거래 계약 등에 관련된 커미션과 수수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등
기타사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 : 상인, 상품중개인, 딜러, 대리인과 비거주자 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의미 - 운용리스서비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와 철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종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 - 기술 및 전문서비스 :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 서비스와 광고 및 시장조사 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건축, 공학 및 기타 기술서비스를 포함.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에는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 제작 관련 서비스, 영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음향 레코딩 제작관련 서비스가 포함됨. 기타문화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스포츠활동 등이 포함.
여행서비스	1년 미만 방문기간 중에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 유학 및 치료목적의 환자는 1년 기준에서 제외
정부서비스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

	(원조사절단, 해외주재의 정부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
--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5, pp.24-25.

3. 서비스무역과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다자간 교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법적으로 두 개의 분리된 협약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GATT 기본틀 안에서의 상품 교역에 관한 협약이고, 둘째는 Punta del Este 회의에 참석한 이해국간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약이다. 각각의 협약들은 개별 기구인 상품 협약 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과 서비스 협약 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 협약들은 모두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협약들은 또한 각료들에 의해 수립된 우루과이 선언문의 공통 강령하에 있다. 따라서 이 두 협약들은 법적으로는 분리되지만 기능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WTO 협정문과 GATS의 차후 관계에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는 GATT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GATS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결합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두 협약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ATS를 독립된 협약으로 채택하였다. GATT와 GATS의 관계에 관련된 제도적 이슈는 WTO 선언문과 상품 교역에 관련된 코드에 더하여 WTO 사무국이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관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WTO 사무국에서 본 협정 관련 행정업무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과 상품 교역 사이의 실용적인 연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GATS(서비스 교역을 위한 일반협정)의 기본 목적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가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 그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은 서비스 교역을 위한 기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체계로

는 첫째, 서비스 국제교역에 관련된 기업의 상업적 활동, 둘째,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의 현황과 변천, 셋째, 특정한 서비스 교역을 다루거나 특정 정책수단의 사용을 다루게 될 때 세분화된 협정 내용에 대한 협상 방식이다.¹⁰²⁾

4.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2007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의 배경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해외이탈 서비스 소비의 국내전환 및 개방화 대비를 들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견우·장석인(1999¹⁰³⁾, 2003¹⁰⁴⁾은 서비스산업의 정책목표를 생산기반 확충,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용증대, 서비스혁신역량 강화,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잠재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서비스산업에서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고용, 성장, 서비스수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부문은 고용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노무현정부에서는 재임기간 내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명박정부에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되고 있다. 또한 성장의 경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제조업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성장여력이 충분하고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으로 신산업의 출현

102)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7, pp.58-60, pp.90-92.

103) 이견우, 장석인,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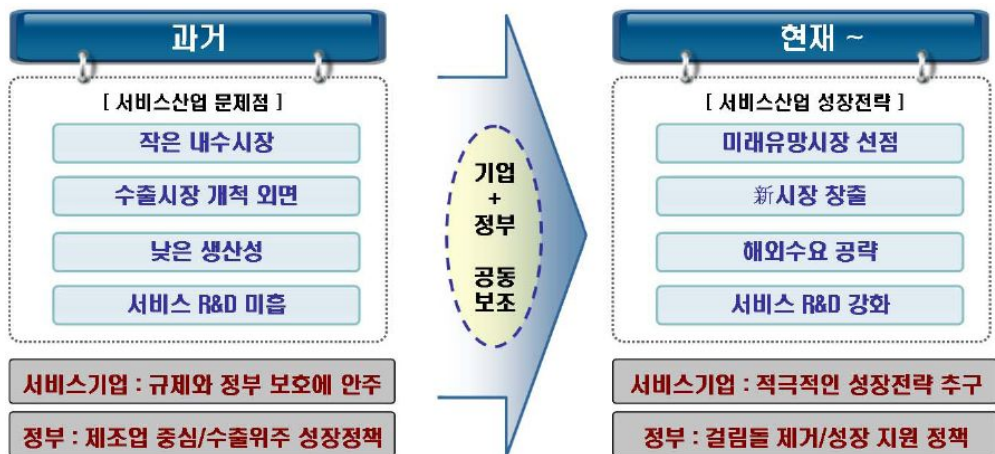
104) 이견우, 장석인, 『정책목표별 주요 서비스업 분류 및 서비스산업 지원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2003.

가능성도 높아 국민경제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통신, 금융, 사업 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산업 등은 전략적 서비스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등에서도 차세대 유망분야로 발표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개선과 서비스 수출의 증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부 정책적으로도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¹⁰⁵⁾

과거의 서비스산업은 수출부문에서는 제조업위주의 발전과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낮은 생산성을 근거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진경제로서의 발전을 하기 위한 국내 생산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1> 서비스산업의 위상변화



자료 : 김진혁, 전개보고서, p.9.

105) 고정민, “정책목표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 21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2, pp.5-6.

5.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가. 서비스의 경제화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제외한 잔여분(residuals)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 물류, 사업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오늘날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경제화’를 가속화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경제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트렌드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서비스산업에는 정보기술의 발달, 글로벌화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 내에서의 구조변화, 그리고 기업 및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 기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구미 선진국은 물론이고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를 육성해 온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서비스산업 속에는 기존의 단순 조립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의 경쟁우위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형적인 분야로는 수출 가능한 서비스업종인 금융, 관광, 국제물류, 사업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의료서비스 등도 부상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다.106)

선진국 경제에서는 경제 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서비스경제로의 이행(Shift to Service)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의 글로벌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근본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 삶의 질 추구하고 관련한 서비스산업의 역할 강화 등에 기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에서의 서비스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 경제화의 심화는 소득증대에 따른 서비스소비의 증가나 정보통신(IT) 등 기술혁신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확장적 발전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경제의 글로벌화, 공급자들이 직면하는 경쟁환경의 변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의한 제품서비스화 등의 영향도 크다. 또한 서비스 경제화의 심화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한몫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의 서비스는 제품판매를 위한 부가적인 기능에 그쳤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생산,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성능유지 또는 업그레이드, 고객이 직면한 문제의 실시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자체를 부가적인 상품으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공급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⁰⁷⁾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 증대

경제성장은 국가의 수출과 내수시장의 활동성으로 구별한다. 우리나라의

106) 최봉현, 박정수,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정책대응 방향”, 「KIET 산업경제」 2008년 6월호, 산업연구원, 2008.6, pp.3-4.

107) 최봉현, 박정수, 상계서, pp.7-8.

경우 수출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국제금융 위기 이후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하락되고 있으나 이를 수출증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의 경우 내수시장의 성장기여도는 분기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경제위기하에서도 2007년 평균 6.66%의 기여를 함으로써 국내경제 성장을 보전시키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내수기여도는 여전히 2~3%대의 낮은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기여도가 2008년 4/4분기까지 감소추세에 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서도 여전히 수출이 국내성장을 견인하고 있다.¹⁰⁸⁾

<그림 2-2> 한국의 분기별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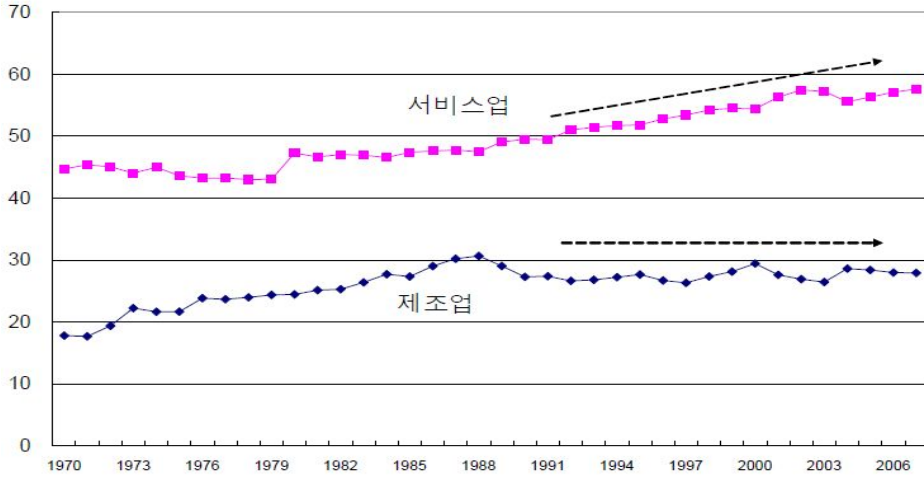
자료 : 황인성,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경제 전망』, 2008.5.29, p.17.

이러한 국내경제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수출형태를 분석하면 <그림 2-3>와 같다. 내수기여도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발전이 아닌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성장이 완만해지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108) 황인성,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경제 전망』, 2008.5.29, p.17.

<그림 2-3>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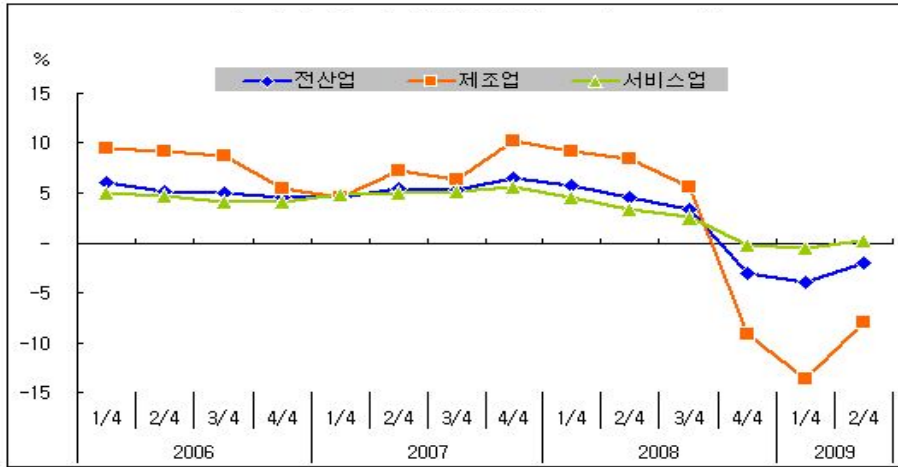


주: 비중은 '서비스산업/총부가가치', '제조업/총부가가치'로 계산.

자료: 김정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SERI 경제포커스」 제18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8.4.7, p.1.

최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을 2006년 이후 2009년 2/4분기까지 금융 위기 기간을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이 제조업의 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이후 급속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국제 금융위기에서도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경제 성장은 수출기여도, 내수기여도 부문에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림 2-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변화(2007.1/4-20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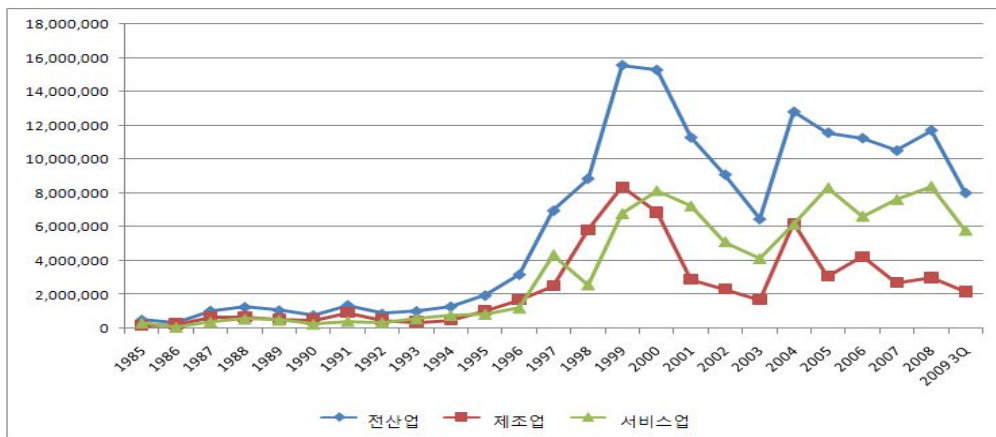


주: 2005=100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09)

<그림 2-5>는 기간별, 산업별 외국인 투자액 추이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6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조업을 능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림 2-5> 기간별·산업별 외국인 투자액 추이

(단위 :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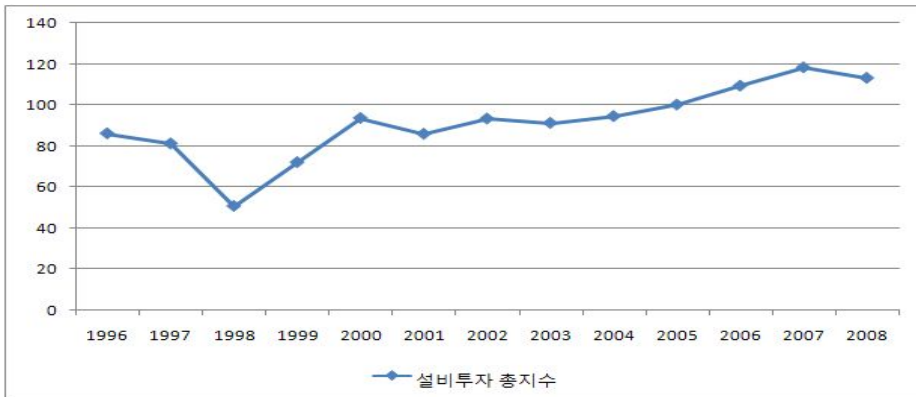
주 : 2009년은 3분기까지의 합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2009년)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은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 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6> 제조업 설비투자 총지수



주 : 2005년=100 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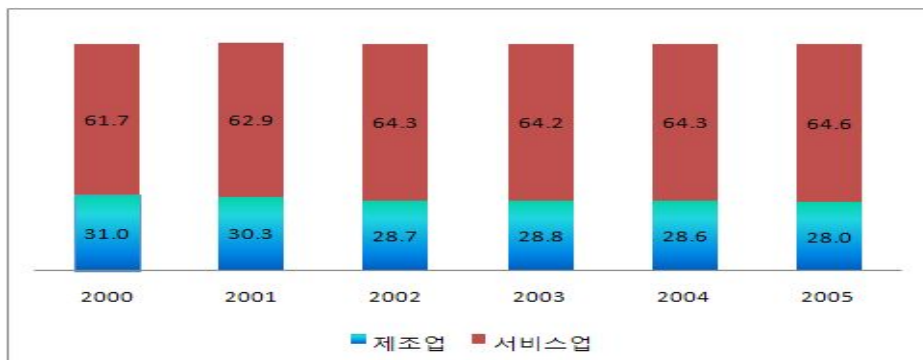
이러한 제조업의 약화는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능력의 저하를 야기시킨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투자부진으로서 한국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1% 증가에 불과하다. 전통 제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조부문의 국내투자비용 상승과 그로 인한 해외투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그림 2-6>참조). 또한 제조업은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증가로 인해 생산성은 높지만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낮아진 것은 1990년 초반부터이고 한국의 경우 IT 호

황을 보인 2001년 이후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흡수력이 높은 편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그림 2-7>참조).

<그림 2-7>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2000~2005)

(단위 : 년도, %)



자료 : 통계청(2009)

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는 고도성장에 따른 농림어업 및 광업의 비중 감소, 제조업 비중의 증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으로 요약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대에 22.7%였던 것이 고도성장기인 1980년대를 거치면서 평균 28.6%까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말 정점에 달한 후 외환위기 동안 잠시 상승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8~29% 내외의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 탈공업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제조업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이 1970년대 평균 44.3%였으나 이후 1980년대 47.6%, 1990년대 52.5%, 2000년 이후에는 59.0%까지 증가하여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

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2000년 이후에 이르러 전산업 대비 23.8%까지 늘어난 가운데 전산업 대비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류는 감소하였다. 특히 반도체, 전자 등 IT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0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8.1%, 1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¹⁰⁹⁾

<표 2-5> 산업구조 변화표

(단위: %)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8	5.1	27.8	2.3	10.6	54.2
1999	5.2	28.5	2.5	9.2	54.5
2000	4.6	28.6	2.5	6.9	57.3
2001	4.4	26.9	2.6	7.1	59.0
2002	4.0	26.5	2.6	7.2	59.8
2003	3.7	26.0	2.6	8.0	59.6
2004	3.7	28.0	2.4	7.8	58.1
2005	3.3	27.8	2.3	7.6	59.0
2006	3.2	27.4	2.3	7.5	59.7
2007	2.9	27.5	2.2	7.4	60.0
2008	2.5	28.3	1.8	7.0	60.3

자료 : 상계서, p.10.

마. 서비스의 산업화

세계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소련과 동유럽에 의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세계경제의 일체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각국 경제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화

109) 최용재 외, 『한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 2008.12, pp.10-11.

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이 하나의 국가경제를 벗어나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에 의하여 재화와 서비스 및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이동하며, 특히 기술발전에 의하여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경제활동에 따라 단순하게 자원의 확보만이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산과 유통의 활동거점을 넓히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내 국제분업이 확대·심화되는 것과 함께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급속하게 공업화가 진전되었다.¹¹⁰⁾

세계무역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생산의 90%는 여전히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소비의 90%도 국산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세계무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무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81%에서 1989년 84%로 증가하였다.¹¹¹⁾ 1992년 세계무역의 70%가 세계인구의 14% 사이에서 이루어졌다.¹¹²⁾

그리고 세계화 국면에 이루어진 세계무역의 확대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표 2-6>에서 보듯이 세계무역은 1950년대 이후 크게 진전되었지만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은 1994년에도 1913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였다. Irwin(1996)¹¹³⁾에 따르면 1889년 미국 상품수출의 GNP에 대한 비율은 5.6%였으며 100년이 지난 1990년에도 7.0%였다.

110) 정재환,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무역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경영학회, 2006.4.8, p.80.

111) Wade, R., “Globalization and Its Limits: Reports of the Death of the National Economy are Greatly Exaggerated,” in S. Berger and R. Dore eds. 1996. p.67.

112) Hirst, P.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Nation State,” *Economy and Society*, Vol.24, No.3. 1995, p.425.

113) Irwin, D. A., “The United States in a New Global Economy: A Century's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96.

Sutcliffe and Glyn(1999)¹¹⁴⁾도 국민경제에 대해 무역의 중요성은 불변가격 기준이 아니라 경상가격 기준으로 측정해야 정확하며 이렇게 측정할 때 <표 2-7>에서 보듯이 2차세대전후 선진국 경제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증가하지 않았다.¹¹⁵⁾

<표 2-6> GNP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율
(단위: %)

	1913	1950	1973	1994
프랑스	30.0	21.4	29.2	34.2
독일	36.1	20.1	35.3	39.3
영국	47.2	37.1	37.6	41.8
네덜란드	100.0	70.9	74.8	89.2
미국	11.2	6.9	10.8	17.8
일본	30.1	16.4	18.2	14.6

자료: Kleinknecht and Wengel(1998)¹¹⁶⁾, 정성진, 상계논문 p.4에서 재인용.

<표 2-7> GNP에 대한 수출의 비율

단위: %

	1913	1950	1960	1973	1985	1995
미국	6	4.6	5.2	7.1	7.3	11.3
유럽연합	22	16.7	19.1	21.8	30.3	29.5
일본	20	11.8	10.7	10.0	14.5	9.4
OECD	16	10.5	12.3	14.3	18.8	20.0

자료: Sutcliffe and Glyn(1999: 115)¹¹⁷⁾, 정성진, 상계논문 p.4에서 재인용.

114) Sutcliffe, B. and A. Glyn, "Still Underwhelmed: Indicators of Globalization and Their Misinterpret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31, No.1, 1999.

115) 정성진,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산업노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1999, pp.3-4.

116) Kleinknecht, A. and J. Wengel, "The Myth of Economic Globalis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2, No.5, September, 1998.

117) Sutcliffe, B. and A. Glyn, "Still Underwhelmed: Indicators of Globalization and Their Misinterpret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31, No.1, 1999.

이러한 세계무역의 성장력 둔화와 무역구조의 한계는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시장개척이라는 명분이 생겼으며 이에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환경 속으로 빠르게 편입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비스산업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지역적, 제도적 특성 및 제약들로 인해 글로벌화의 대세에서 한 발짝 비켜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994년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 완전 타결 이후 서비스산업도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95년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 사항에 대한 실제적이고 강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국제간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도 이제는 제조업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으로 가속화 중이다.¹¹⁸⁾

선진국에서는 최근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전통적으로 내수형 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IT, 의료, 설계, 애니메이션, 금융, 유통, 콜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개도국으로 이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IT 인프라의 확충과 글로벌화와 함께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질 좋은 근로자가 가상공간을 통해 선진국 고객들에게 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¹¹⁹⁾

118) 하태경,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824호, LG경제연구원, 2005.3.23, p.26.

119) 이지형, “서비스 산업의 공동화와 비즈니스 기회”, 「LG주간경제」 987호, LG경제연구원 2008.5.7, p.3.

제3절 서비스산업 교역현황 및 무역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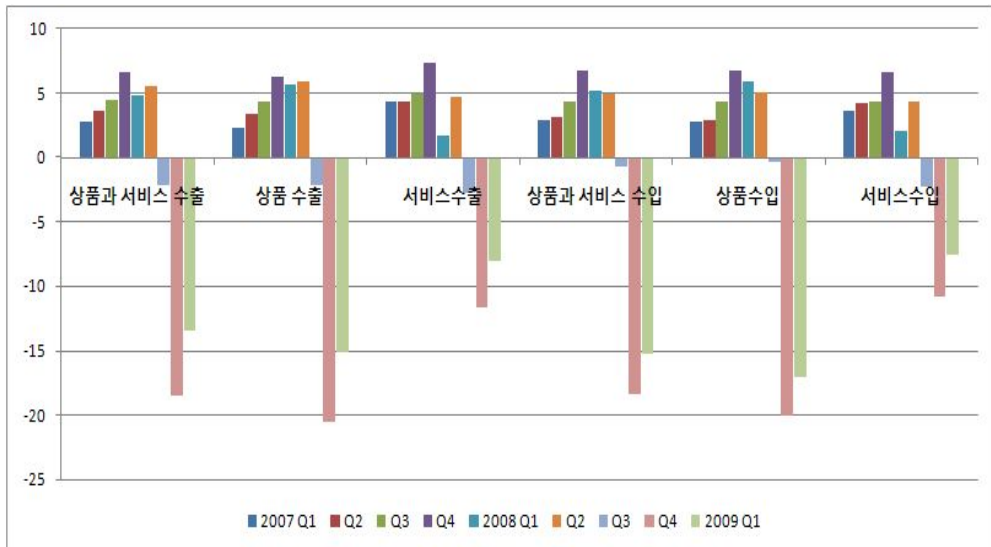
1. 서비스산업 교역현황

가. OECD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

<그림 2-8>은 OECD 회원국 30개국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을 전년대비 분기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7년 1/4분기부터 2009년 1/4까지 나타내고 있다. 각 분기별 상품,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같은 형태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언급했듯이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무역국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은 2008년도 3/4분기부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상품과 서비스교역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 OECD 회원국 수출·입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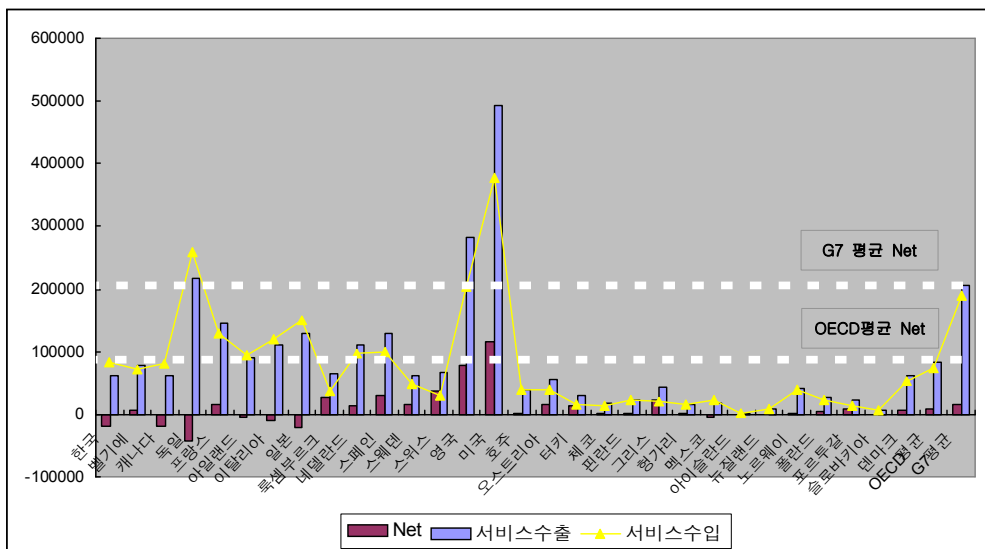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09.7.15)

주 : 각 분기는 전년 분기 대비.

<그림 2-9>는 OECD 30개 회원국의 2007년도의 서비스 전체 수출과 수입, 서비스수지를 나타낸다. 2008년의 경우 수출과 수입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07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 비슷한 서비스수출 규모의 국가군으로는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브루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이다. <그림 2-9>에서 서비스수출 막대와 서비스수입선의 갭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의미함으로 상위 국가들 중 서비스수지 적자형태를 나타내는 국가는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이며 벨기에, 룩셈브루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는 모두 서비스수지 흑자국으로 나타났다. G7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서비스수출을 주도하고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국가군으로는 한국, 캐나다, 독일, 일본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OECD 회원국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수지(2007년)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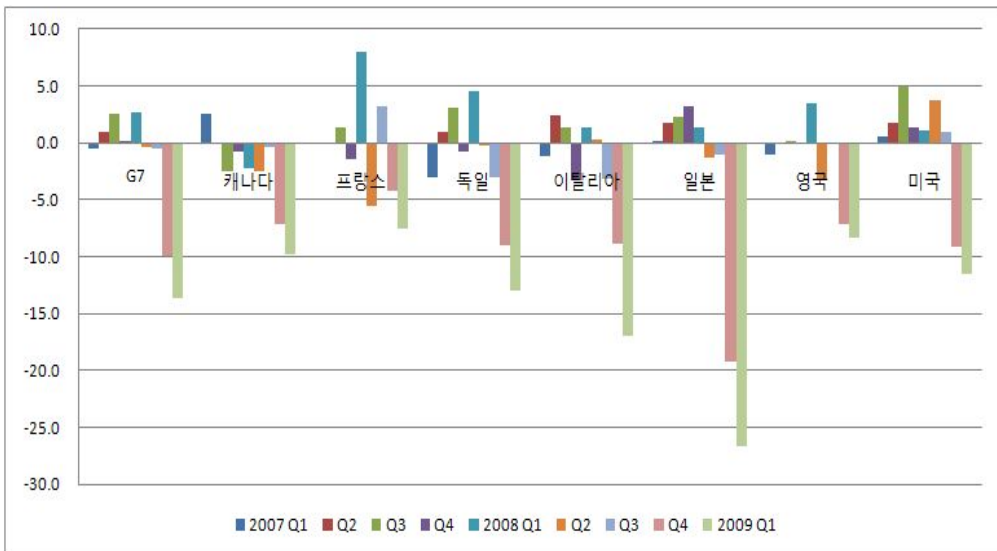
자료 : OECD DB(2009)을 기준으로 재작성.

나. G7 국가의 수출·입 현황

<그림 2-10>은 G7국가들의 2007년 1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의 수출 성장률을 나타내는 표이다. 2008년 1분기까지 G7국가들은 수출 성장률이 1~2%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도 2분기부터 급속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급속하게 전개 되고 있으며 2009년 1분기는 -26.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0> G7 국가의 분기별 수출현황

(단위 : %)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0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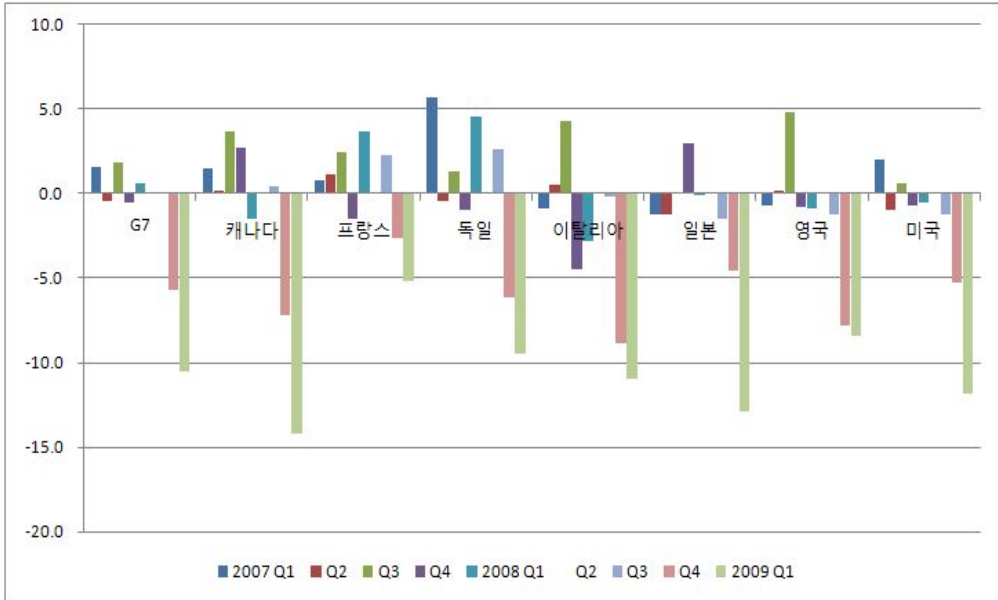
주 : 각 분기는 전년 분기 대비.

수입의 경우 2007년 3분기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07년 4분기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된 후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는 수입이 G7 평균 -5.7%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캐나다와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7%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9년 1분

기에는 캐나다(-14.2%), 이탈리아(-11.0%), 일본(-12.9%), 미국(-11.8%)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2-11> G7 국가의 분기별 수입현황

(단위 : %)



자료 : OEC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09.7.15)

주 : 각 분기는 전년 분기 대비.

G7 국가들은 수출과 수입이 2008년 2분기 이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국제금융 위기 이후 G7 국가들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9월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초유의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결과로 나타나 2008년 10월과 11월에 세계 상품수출액이 전례 없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120)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5, pp.28-29.

다. 한국의 수출·입 현황

1998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1998년 고환율을 맞아 수입의 감소로 인해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IMF 이전인 1997년을 상회하여 2005년 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그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2-8> 한국의 경상수지 현황

(단위 : 백만불)

	경 상 수 지						
		상 품 수 지		서비스 수 지	소득수지	경 이 전 수 지	상 전 수 지
		수 출	수 입				
1995	△8,665	△4,365	124,934	129,298	△2,979	△1,303	△19
1996	△23,120	△15,077	130,038	145,115	△6,179	△1,815	△49
1997	△8,287	△3,256	138,731	141,986	△3,200	△2,454	623
1998	40,371	41,665	132,251	90,586	1,024	△5,638	3,320
1999	24,522	28,463	145,375	116,912	△651	△5,159	1,869
2000	12,251	16,954	176,221	159,267	△2,848	△2,421	566
2001	8,033	13,488	151,478	137,990	△3,872	△1,198	△385
2002	5,394	14,777	163,414	148,637	△8,198	432	△1,618
2003	11,950	21,952	197,289	175,337	△7,424	326	△2,905
2004	28,174	37,569	257,710	220,141	△8,046	1,083	△2,432
2005	14,981	32,683	288,971	256,288	△13,658	△1,563	△2,482
2006	5,385	27,905	331,842	303,937	△18,961	534	△4,093
2007	5,876	28,168	379,045	350,877	△19,768	1,003	△3,527
2008	△6,406	5,994	433,427	427,434	△16,734	5,107	△773
2009.							
1	△1,636	△1,737	22,537	24,273	△709	564	246
2	3,564	3,107	25,267	22,160	△529	485	501
3	6,649	6,979	30,414	23,435	△646	△216	531
4	4,284	6,169	30,309	24,141	△1,109	△856	80
5	6,496	4,882	27,891	23,009	△1,467	358	△278
6	5,431	6,612	31,569	24,957	△1,445	678	△414
7	4,397	6,165	33,567	27,402	△1,894	482	△355

자료: 한국무역협회(2009)

<표 2-9>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율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의 수출·입으로 조사한 표이다. 국내총생산 중 최종소비지출은 민간부문이 2000년 중반이후 40%대 수준으로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총고

정자본형성도 2004년 이후 2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비투자의 활성화로 기여율이 높아져있지만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미비한 상태이다.

<표 2-9>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국내총생산(실질) 기여율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최종소비지출	70.2	56.1	84.6	72.3	-7.1	6.0	57.9	58.2	58.8
민간	55.8	53.6	69.3	61.8	-21.9	-3.6	43.4	43.5	44.5
정부	14.4	2.4	15.4	10.5	14.8	9.6	14.5	14.6	14.3
총자본형성	57.8	38.3	-0.4	25.2	23.5	29.6	14.5	21.2	14.3
총고정자본형성	46.5	43.2	-1.5	28.4	38.1	13.2	16.7	20.0	23.0
재고증감	11.3	-4.9	1.1	-3.2	-14.6	16.4	-2.2	1.2	-8.6
재화와서비스수출	41.9	83.8	-29.0	72.7	24.0	187.9	105.5	124.4	139.8
재화수출(FOB기준)	28.1	82.3	-39.1	75.2	206.6	176.1	106.5	117.0	124.3
서비스수출(FOB기준)	13.8	1.5	10.0	-2.5	-2.6	11.8	-1.0	7.4	15.5
재화와서비스수입	-67.3	-80.4	40.9	-75.8	-121.9	-117.4	-75.1	-98.5	-113.1
재화(FOB기준)	-53.0	-68.9	47.6	-62.7	-110.8	-95.6	-54.5	-79.1	-83.9
서비스(FOB기준)	-14.3	-11.6	-6.7	-13.2	-11.1	-21.8	-20.6	-19.4	-29.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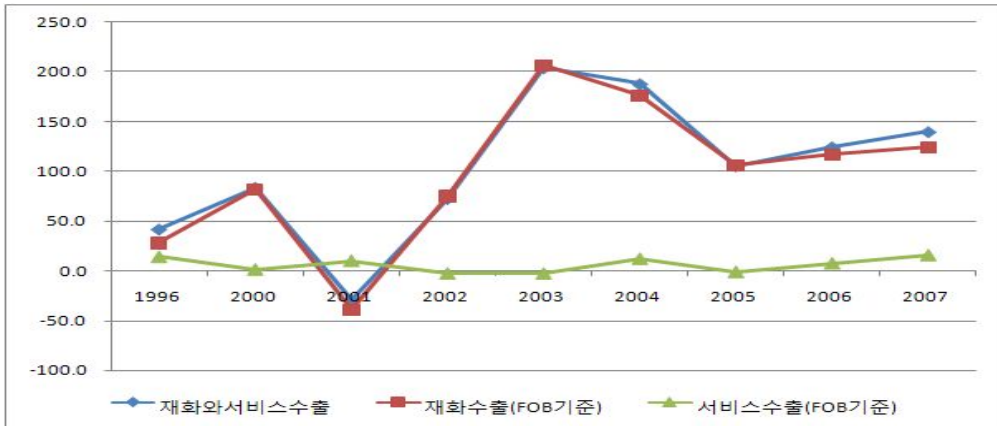
주 : 2000년 가격기준

자료: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2009.5)

<그림 2-12>와 <그림 2-13>는 재화와서비스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표 3-2>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수출형태를 살펴보면 재화와서비스수출은 재화수출선과 일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서비스수지의 수출 기여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은 재화중심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2>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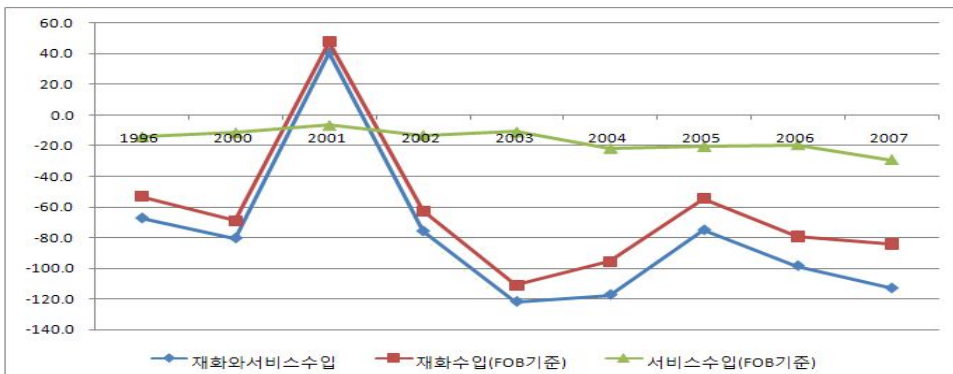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2009.5)

그러나 재화와서비스수입의 경우 수출형태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수입선과 재화수입선의 수입형태는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과는 다르게 갭(Gap)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순수하게 서비스수입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재화와 수입에 있어서 서비스수입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3> 재화와서비스 수입의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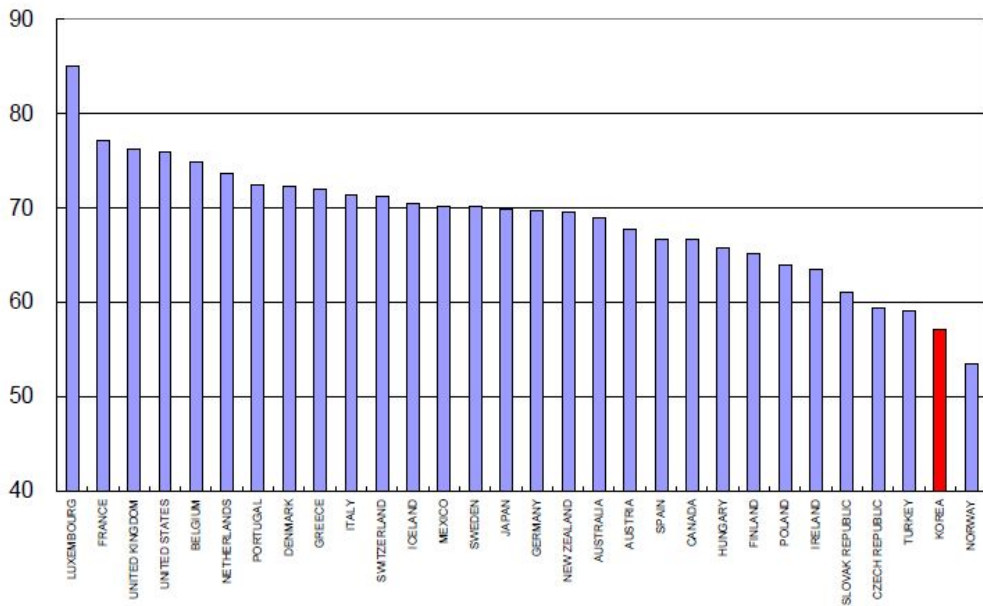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2009.5)

2.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서비스무역 비교분석

가.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 수출 비교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57.1%)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노르웨이, 체코, 터키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조업이 강한 일본(69.9%), 독일(69.8%), 핀란드(65.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¹²¹⁾

<그림 2-14>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비중 순위



주: 1. 미국, 아이슬란드, 일본은 2005년, 호주멕시코는 2004년, 캐나다, 뉴질랜드는 2003년, 나머지 국가는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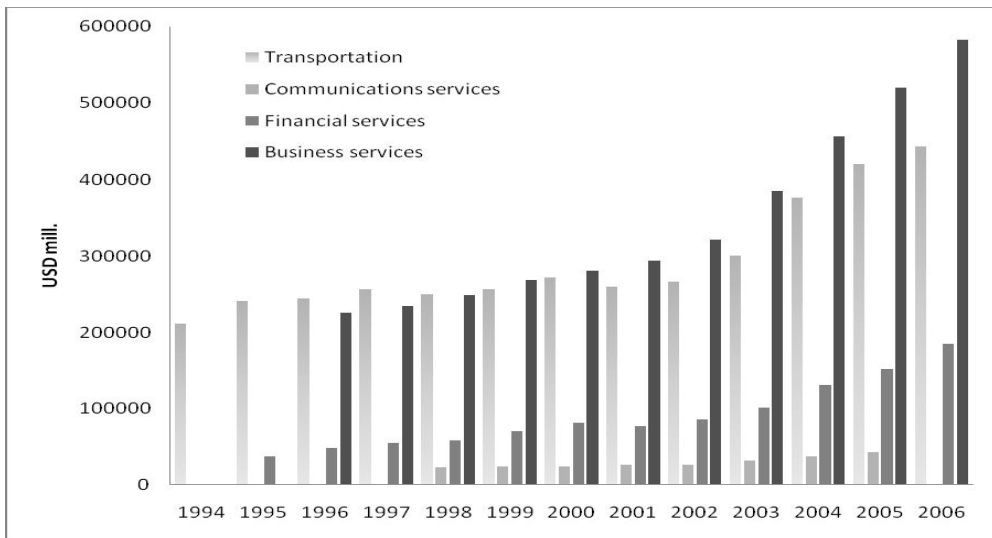
2. 서비스산업 비중은 건설부문이 제외

자료 :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김정우, 전계보고서에서 재인용.(p.2.)

121) 김정우, 전계보고서, p.2.

OECD 회원국 주요 서비스품목 수출현황을 보면 운수서비스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품목으로 성장하였으며 운송과 금융서비스도 OECD 회원국의 주요한 서비스수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OECD회원국 주요 서비스품목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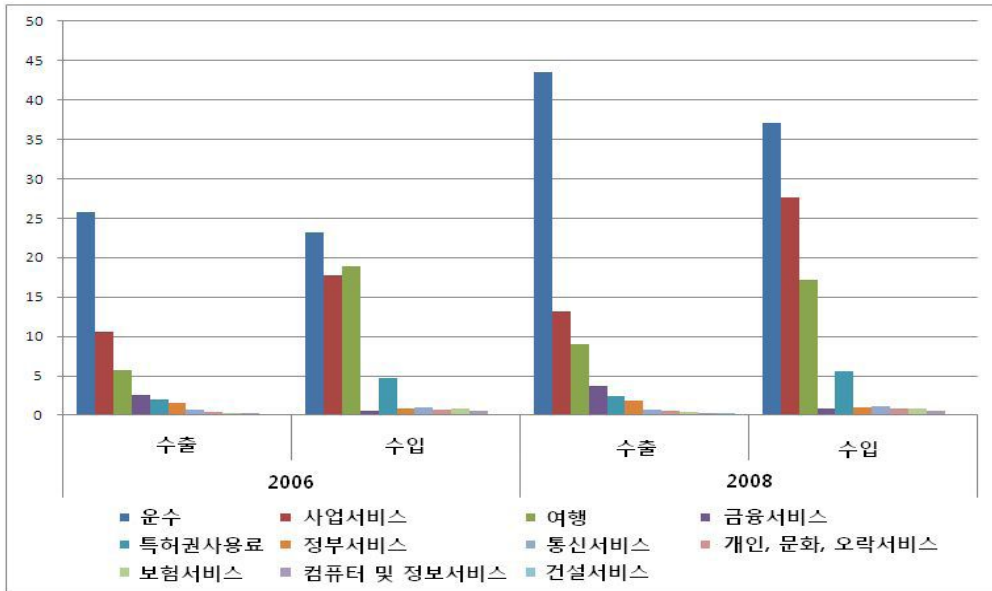
자료 : Hildegunn Kyvik Nordås and Henk Kox,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85」, OECD, 2009.2, p.17.

<그림 2-16>은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출품목을 2006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운수서비스가 가장 큰 수출 품목이며 사업서비스와 여행서비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의 경우 운수와 사업서비스가 강해지고 있으며 로열티와 라이선스서비스의 수입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8년에는 환율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수입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의 적자폭은 오히려 대폭 확대되었다.¹²²⁾

122) 강유덕,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KIEF 오늘의 세계경

<그림 2-16>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 수출입 비교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강유덕, 상계보고서, p.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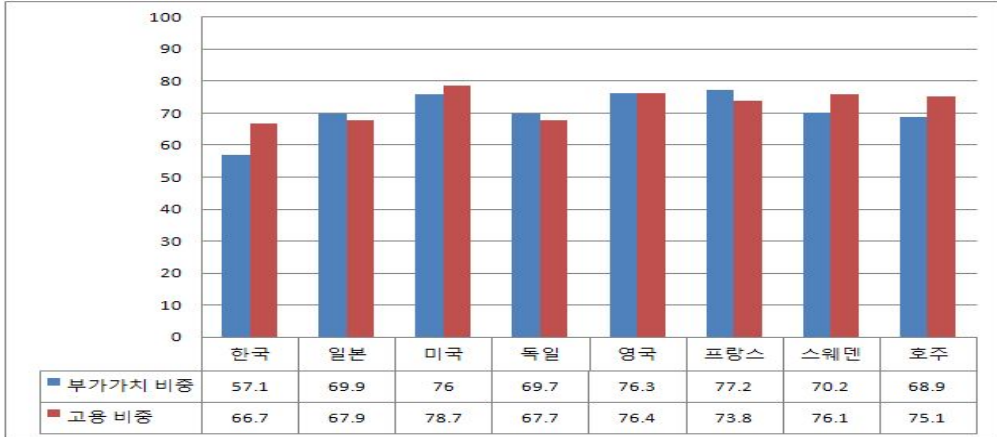
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

<그림 2-17>은 OECD 주요 회원국들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을 나타내는 표이다. 한국은 2007년 기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7.1%, 고용비중 66.7%로서 선진국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경제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서비스화인데, 이는 지식기반화와 더불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¹²³⁾

제1 제9권 제2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6.26, p.3

<그림 2-17> OECD 주요국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2007)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고용비중(<http://www.istan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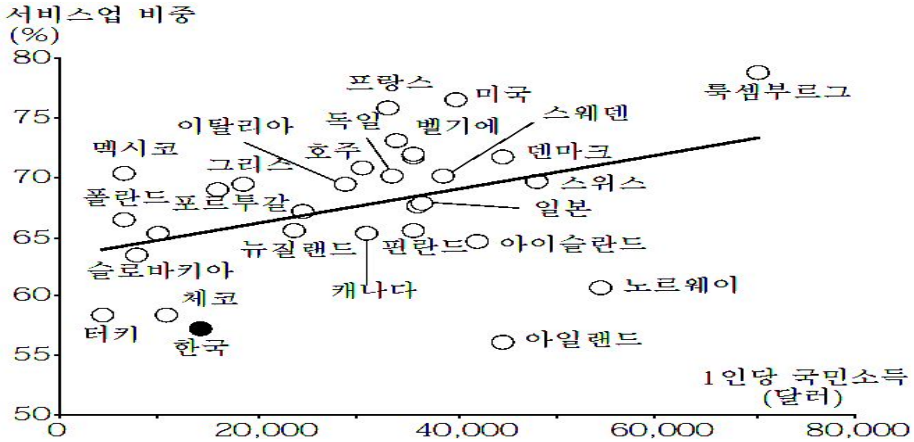
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분석

지난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생산성도 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좁히는 데 성공한 반면 오랜 사업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지식, 문화적 역량 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투자나 혁신노력 등에서 매우 인색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¹²⁴⁾

123) 김휘석 외,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와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KIET 산업경제」 2007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07.4, pp.21-23.

124) 조용수,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 주간경제」 881호, LG경제연구원, 2006.4.26, pp.27-28.

<그림 2-18>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



자료 : OECD(2005), 조용수, 상계보고서, p.2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하거나 하위인 국가군들의 서비스업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낮은 상태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보다도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서비스산업의 GDP와 고용 비중이 급속이 높아지는 ‘서비스 이코노미’로 전환 중이며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의 GDP와 고용의 75% 내외를 차지하고, OECD 국가는 평균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²⁵⁾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2000년 이후 5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비중은 GDP 비중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년 과학기술 정책 10대 과제”, 「STEP1 INSIGHT」 제13호, 2009.1.6,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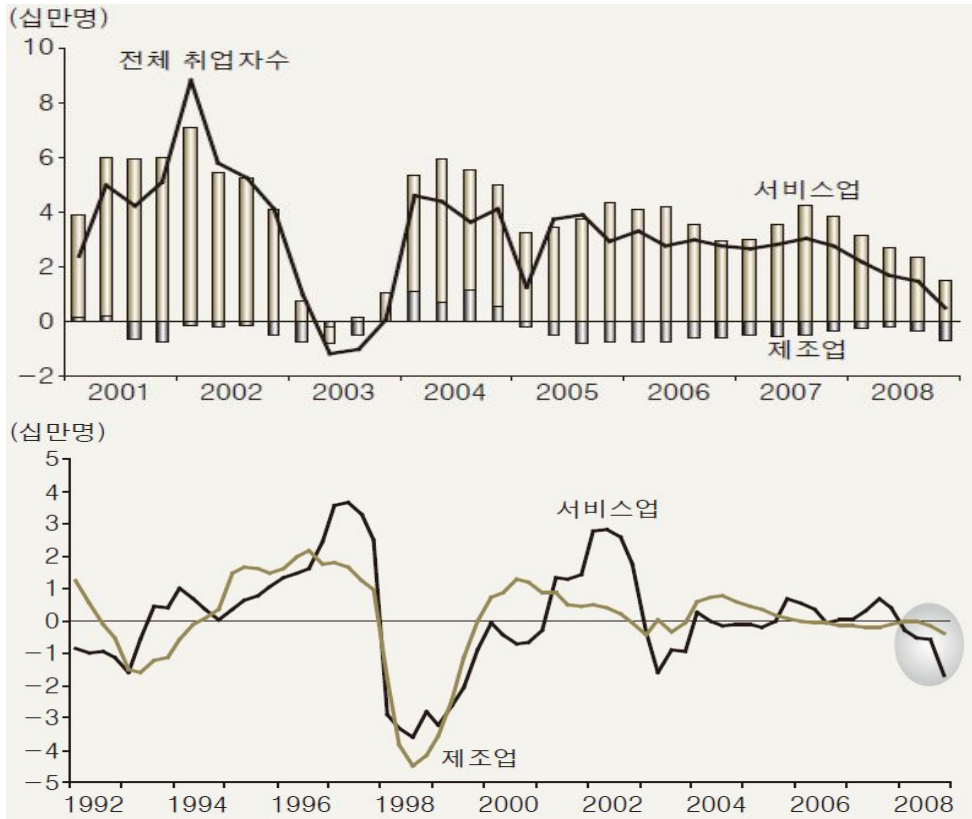
3.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가. 고용악화

고용 사정 악화는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19>참조). 2008년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4만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출 중심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면서 생산성, 효율성 제고와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추세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4만8천명 줄어든 것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작은 것이다. 반면 제조업에서 이탈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해온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007년 3/4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4/4분기의 취업자수 증가가 1/4분기의 절반 수준(15만명)으로 급락하였다.¹²⁶⁾

126) 윤상하, “서비스업 고용 흡수 여력 있나”, 「LG Business Insight」 1028호, LG경제연구원, 2009.2.16, p.47.

<그림 2-19> 경기 순환에 따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수 변화



자료 : 통계청, 윤상하 상계보고서, pp.47-48에서 재인용.

주 : 계절조정 취업자수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임.

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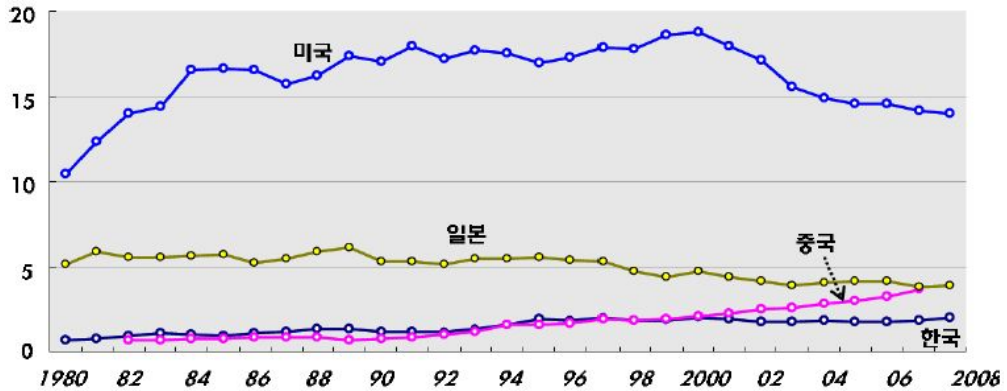
<그림 3-13>은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한국의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중국보다 낮으며,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정체 상태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738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3조 7,313억 달러 중 1.98%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¹²⁷⁾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점인 2001년의 경우, 점유율이 하락하는 만큼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2-20>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김진혁, 상계보고서, p.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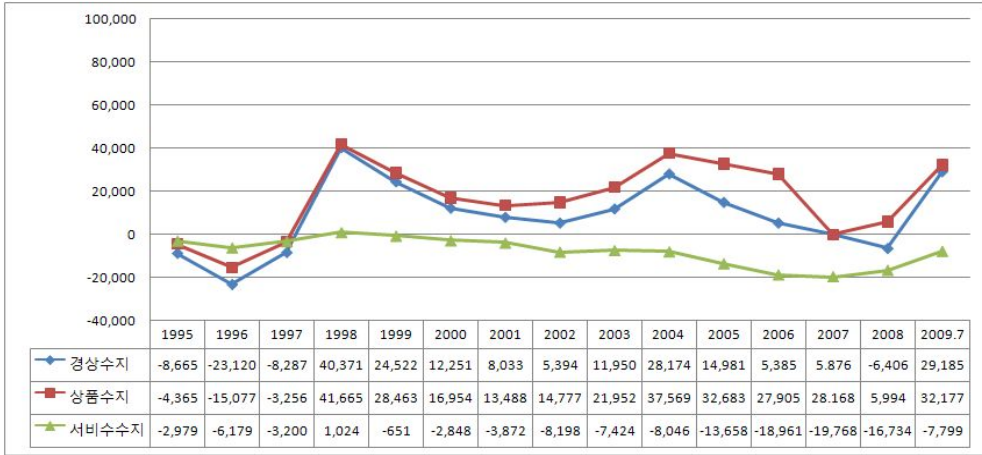
다. 서비스수지 만성적자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8년 고환율과 IMF 경제위기로 서비스수입이 감소하여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서비스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내수시장 부진과 환율상승의 효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수입 품목의 대체품목으로 전환된 경쟁력 강화가 없는 일시적 현상이다.(<그림 2-21>참조)

127) 김진혁 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과제”, 「CEO Information」 70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5.27, p.4.

<그림 2-21> 우리나라 경상수지 현황(1995-2009.7)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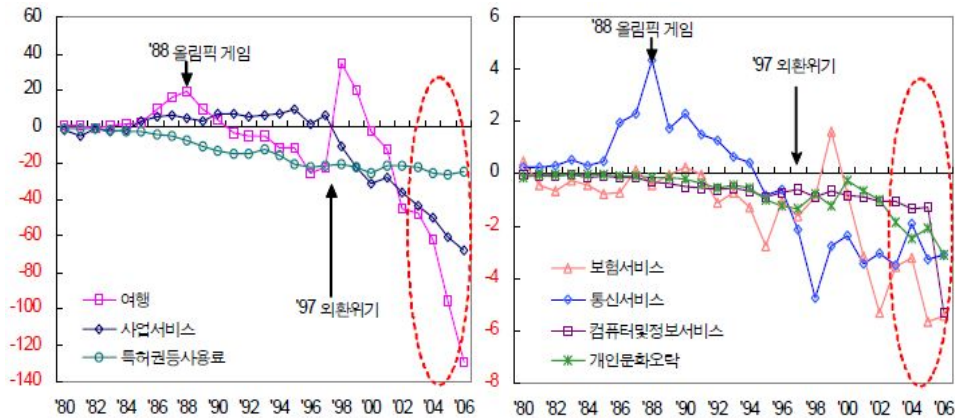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항목별로 보면 여행·사업 및 특허권등사용료가 만성적인 적자 부문인 반면, 운수·금융 및 건설서비스는 각각 해상화물운임 상승, 외국인 주식거래규모 증가, 해외건설수주 증가 등으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수지의 가장 큰 적자 부문은 여행수지인데, 해외출장 및 관광 등 일반여행이 적자의 주요인이며, 사업서비스수지 적자중에서는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 및 무역관련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행 및 사업서비스에 이은 제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인 특허권등사용료수지에서는 산업공정관리기법, 제품원천기술 등의 이용에 따른 로열티지급과 관련된 기타특허권등사용료 지급이 적자의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2005년 이후 서비스수지누적 적자의 70%를 여행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열위, 해외여행 증가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낮은 교육인프라수준 및 기업의 글로벌화 확대 등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¹²⁸⁾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이후¹²⁹⁾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특히 2005년 이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¹³⁰⁾, 유학·연수 증가 및 환율하락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30~50억 달러씩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소비 부진 및 환율상승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일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 2%를 상회하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¹³¹⁾

<그림 2-22> 1980년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항목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 장재철, “서비스수지 적자확대와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139호, 삼성경제연구소, 2007.4, p.4.

라. 연구개발 부진

128)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MONTHLY BULLETIN」 November 2008, 한국은행, 2008.11, pp.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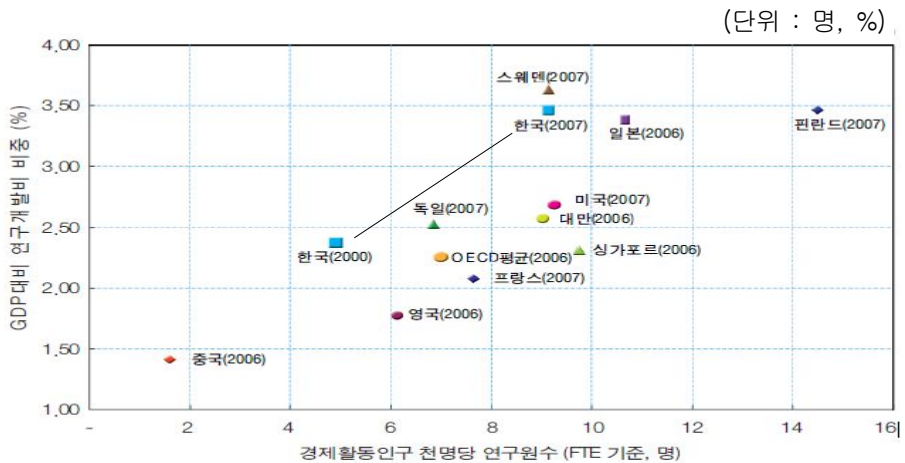
129) 이전에는 소득수준이 낮았던 데다 해외여행 제한, 용역계약 및 기술도입 허가제, 거주자의 대외송금한도 규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정책적으로 억제하였다.

130) 2004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래 2005년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006년 7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007년 7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008년 7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13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12, p.35.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개발비와 연구원 동향은 증대하고 있으나 전산업 대비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 개발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그림 2-23, 24>참조)

<그림 2-2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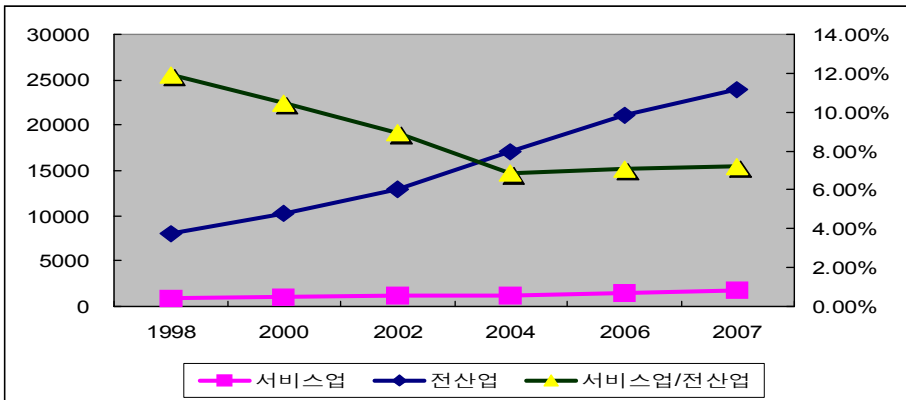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8, 2: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p.35에서 재인용

또한 2007년 기준 전체 서비스업 연구개발비는 23조, 8648억 원 중 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89.5%를 차지하고 있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등의 연구개발은 미미한 상태이다.

<그림 2-24> 산업구문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십억원,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호.

제3장 OECD 회원국 내의 한국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제1절 분석방법론 및 자료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국제경쟁력 분석은 국제무역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경쟁력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국제경쟁력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분석 방법은 <표 3-1>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표 3-1> 국제경쟁력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분석방법
무역특화지수(TSI)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사용
산업내무역지수	한 나라의 특정산업 또는 품목부문이 다른 나라(또는 전체 세계경제)와 통합된 정도를 무역의 흐름을 분석함. 동종 산업 안에서 품질은 비슷하지만 디자인과 기능 등 제품의 속성에서 차이가 나는 상품 간의 무역을 수평적인 산업내무역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제품의 속성과 품질 모두에서 차이가 나는 상품 간의 무역을 수직적인 산업내무역이라 함
무역보완도지수(TCI),	한나라의 수출구조와 교역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무역결합도지수(TII),	일국의 수출총액 중 교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과 세계수입총액 중 교역 상대국의 수입액을 비교하여 양국간의 수출입 결합의 비중을 분석
수출경합지수(ESI)	해외시장에서 국가간 수출상품 경쟁의 정도를 측정

	하는 지표로서 국가간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음. 0과 1사의 값을 가짐
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써 계산된다
무역수지기여도	특정품목의 실제 교역수지와 특정 타품목의 이론상 교역수지를 비교하여 두 품목의 교역수지에 대한 구조적기여 정도를 측정하며, 국가간 비교시는 정규화를 위해 GDP로 나누어 사용.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이다. 수입단가지수/수출단가지수의 비율(순상품교역지수)로 표시된다
소득교역조건지수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냄 소득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x 수출물량지수)
시장점유율(MS)	특정 업종의 제품시장에서 취급되는 전체 거래량 중에서 특정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으로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의존도, 세계시장점유율(SH)을 사용하였으며, 현시비교우위지수는 Vollrath의 RCA와 Ferto and Hubbard의 RCA지수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수입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포함시켜 5가지 변인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OECD Trade in Services Statistics 통계자료를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한정시켜 사용하였다.

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ed Index: TSI)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는 -1과 1상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양국의

산업간 특화가 이루어진 경우 -1 또는 1 쪽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양국의 산업간 특화가 약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완전수출특화 -1에 가까울수록 완전수입특화를 의미한다. 0인 경우는 비교우위중립 상태를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의 산출방식은 식(1)과 같다.

$$\text{무역특화지수} = \frac{(X_i - M_i)}{(X_i + M_i)} \text{-----식 (1)}$$

여기서 i 는 해당산업 X 는 수출, Y 는 수입을 나타낸다. X_i 는 i 산업 또는 품목의 수출액, M_i 는 i 산업 또는 품목의 수입액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산업으로 국한시켜 사용하였다.

2. Vollrathe, Ferto and Hubbard 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다.

현시비교우위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Vollrathe(1991)¹³²⁾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CA = \frac{\text{한국}i\text{산업의 수출액}}{\text{한국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 \frac{\text{세계}i\text{산업의 수출액}}{\text{세계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text{---식(2)}$$

그러나 볼라스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는 수입액에 상관없이 수출액만을 기준으로 RCA를 계산한다는 약점이 있다. 만약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의 무역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면, 수입량에 관계없이 RCA지수가 상승하여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특정국가의 수출량과 수입량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비교우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erto and Hubbard(2003)¹³³⁾의 현시비교우위지수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Ferto and Hubbard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량뿐만 아니라, 수입량도 고려한 것으로, Vollrath의 RCA지수에서는 지수가 1보다 큰 업종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고 1보다 작은 업종이 비교열위가 있는 업종인 반면, Ferto and Hubbard의 RCA지수에서는 지수가 0보다 큰 업종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 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¹³⁴⁾

$$i\text{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 = \text{RXA} - \text{RMA} \text{-----식(3)}$$

(RXA: The Revealed Export Advantage, RMA: The Revealed Import Advantage)

132)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30, 1991.

133) Ferto, I. and L.J. Hubbar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 Food Sectors", *World Economy*, Vol.26, No.2, 2003.

134) 조현승, 전제논문, p.40.

$$RXA = \frac{\text{한국 } i\text{산업의 수출액}}{\text{한국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 \frac{\text{세계 } i\text{산업의 수출액}}{\text{세계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출액}}$$

$$RMA = \frac{\text{한국 } i\text{산업의 수입액}}{\text{한국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입액}} / \frac{\text{세계 } i\text{산업의 수입액}}{\text{세계 서비스산업 전체의 수입액}}$$

3. 세계시장 점유율(World Market Share Rate)

시장 점유율 분석은 특정 수출/수입 시장에서 각국의 무역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전세계 수출/수입 시장에서 해당국의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세계시장 점유율은 세계전체 수출액중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SHi = (EXi / WEXi) * 100 \text{ -----식(4)}$$

WEXi 는 세계의 산업별 총수출액이고, EXi는 한국의 산업별 총수출액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의 서비스산업별 총 수출액과 한국 서비스산업별 총수출액 서비스산업에 한정시켜 계산하였다.

4. 무역의존도

무역의존도는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따라서 구조변동기에는 비교적 안정적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무역의존도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무역의존도} = \text{교역액(수출액+수입액)}/\text{GDP} \text{ -----식(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과 수입액을 GDP로 나누면 서비스무역의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토가 넓은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낮고 협소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일국의 경제와 외국의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경기순환 변동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낮은 경우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국내 분업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자급자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경제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그러므로 무역의존도는 각국의 국민경제 있어서 무역의 비중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이용된다.¹³⁵⁾

제2절 OECD 회원국 내의 한국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1. 서비스산업 수출 경쟁력 분석

<표 4-1>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이다. 현재 서비스산업 수출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서비스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표 3-2>는 이후 경쟁력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자료로 사용하였다.

135) 전기보, 전계논문,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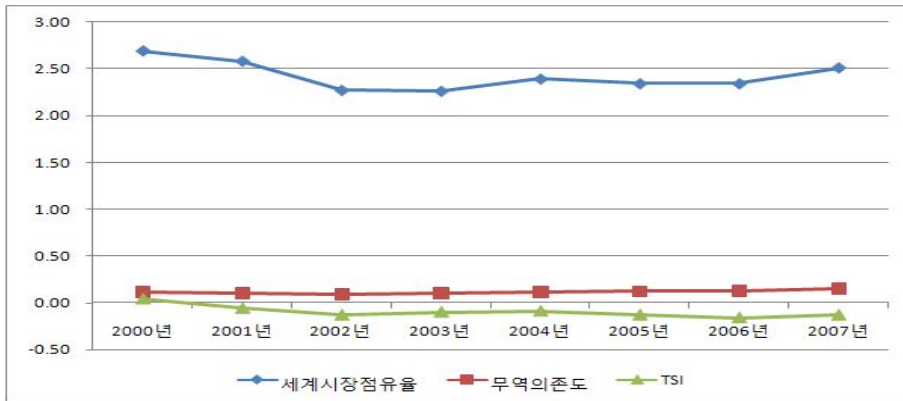
<표 3-2> 한국의 서비스수지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수출	30,534	29,055	28,388	32,957	41,882	45,129	49,891	63,349
	수입	33,381	32,927	36,585	40,381	49,928	58,788	68,852	83,116
서비스수지		-2,847	-3,872	-8,197	-7,424	-8,046	-13,659	-18,961	-19,767
운수	수출	13,687	13,180	13,216	17,180	22,529	23,877	25,807	33,556
	수입	11,048	11,043	11,301	13,613	17,655	20,144	23,133	29,076
여행	수출	6,834	6,384	5,936	53,58	6,069	5,806	5,788	6,138
	수입	7,132	7,617	10,465	10,103	12,350	15,406	18,851	21,975
커뮤니케이션	수출	387	398	378	341	446	443	642	547
	수입	623	742	685	693	636	773	1012	913
건설	수출	29	82	39	37	99	111	133	128
	수입	16	15	24	14	4	6	3	11
보험	수출	68	60	37	34	139	169	274	415
	수입	146	374	571	390	461	733	854	1,000
금융	수출	705	533	695	699	1083	1,651	2,543	4,001
	수입	191	83	70	101	127	235	547	696
컴퓨터와정보	수출	11	16	20	30	25	57	248	340
	수입	92	104	124	134	157	183	598	544
로열티와라이선스	수출	688	924	835	1311	1,861	1,908	2,046	1,735
	수입	3,221	3,053	3,002	3,570	4,446	4,561	4,650	5,134
기타서비스	수출	7,200	6,388	6,006	6,687	8,125	9,422	10,532	14,421
	수입	10,328	9,237	96,07	11,049	13,163	15,538	17,705	21,829
개인·문화·오락	수출	137	138	185	76	128	268	369	448
	수입	160	206	283	261	376	477	671	929

자료: OECD DB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 분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00년 기준 2.69%에서 2007년 OECD 30개국의 서비스시장에서 2.51%까지 점유율을 나타냈다. 8년 동안 한국 서비스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이 2000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2000년 0.11%에서 2007년 0.15%로 소폭 증가하였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GDP의 감소, 수입 증가로 상승할 수 있다. 2000년보다 2007년의 우리나라 서비스수지가 악화되었고 GDP가 매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무역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서비스산업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TSI의 경우 2000년 이후 음(-) 값을 나타내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수입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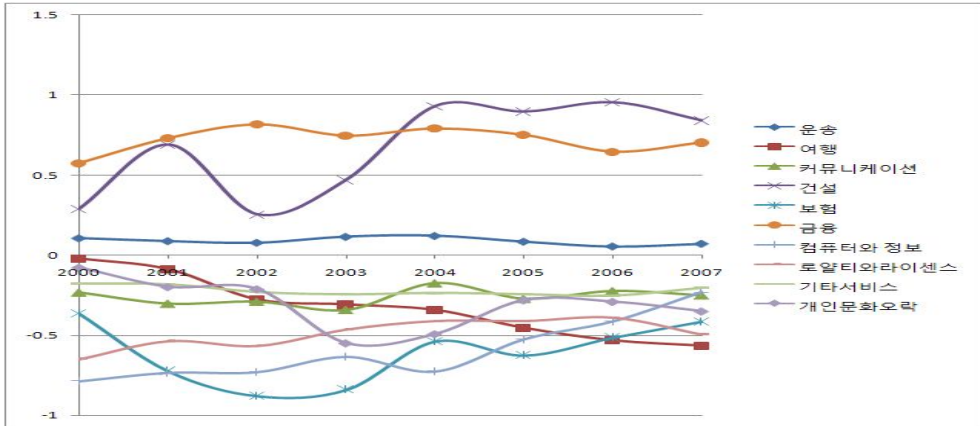
<그림 3-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2.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 분석

<그림 3-2>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특화지수이다. 조사 분야인 10개 분야 중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지수를 나타내는 분야는 건설, 금융, 운송서비스 부문이며 여행, 커뮤니케이션, 보험, 컴퓨터와 정보, 로열티와 라이선스, 기타비즈니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분야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는 2004년 이후 1에 가까운 완전특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특화지수(2000-2007)



<표 3-3>은 무역특화지수를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교우위 분야는 건설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분야이며 점차 무역특화지수가 완전비교우위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는 개선, 기타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개인·문화·오락서비스는 악화, 보험서비스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2003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다. 여행서비스 수지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고,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의 무역특화지수도 2005년을 기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표 3-3> 무역특화지수(TSI)을 통한 비교우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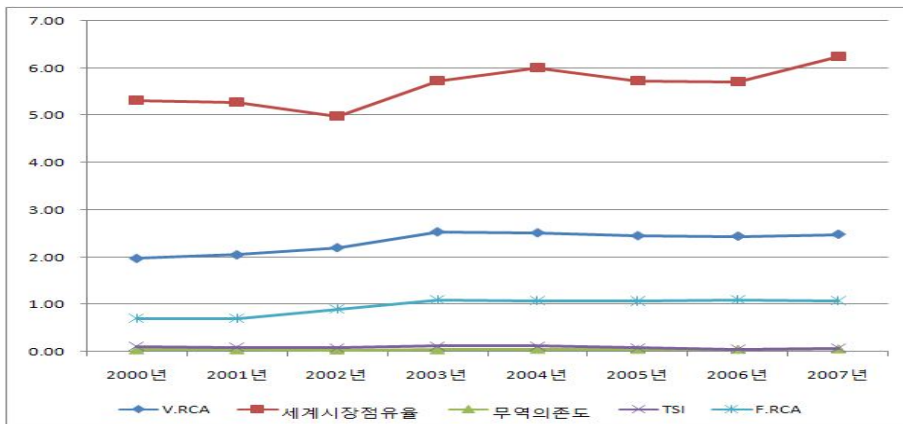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설서비스	0.288	0.690	0.253	0.470	0.932	0.897	0.955	0.841	비교우위
금융서비스	0.573	0.730	0.816	0.746	0.790	0.750	0.645	0.703	
운수서비스	0.106	0.088	0.078	0.115	0.121	0.084	0.054	0.071	비교우위중립
기타서비스	-0.178	-0.182	-0.230	-0.245	-0.236	-0.244	-0.254	-0.204	비교열위
컴퓨터와 정보	-0.786	-0.733	-0.729	-0.634	-0.725	-0.525	-0.413	-0.230	
커뮤니케이션	-0.232	-0.301	-0.289	-0.340	-0.175	-0.271	-0.223	-0.250	
개인문화오락	-0.077	-0.197	-0.211	-0.548	-0.492	-0.280	-0.290	-0.350	
보험서비스	-0.364	-0.723	-0.878	-0.839	-0.538	-0.625	-0.514	-0.413	
로열티와 라이선스	-0.647	-0.535	-0.564	-0.462	-0.409	-0.409	-0.389	-0.494	
여행서비스	-0.02	-0.088	-0.276	-0.306	-0.341	-0.452	-0.530	-0.563	

3.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분석

가. 운수서비스 부문

운수서비스업은 2007년 기준 세계시장점유율이 6.24%, V.RCA의 경우 2.48, F.RCA는 1.08로 모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TSI가 0.07로서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분야이다. 운수서비스는 수출과 수입 교역량이 높으며 서비스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가 0.06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그러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무역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서비스분야로 증대 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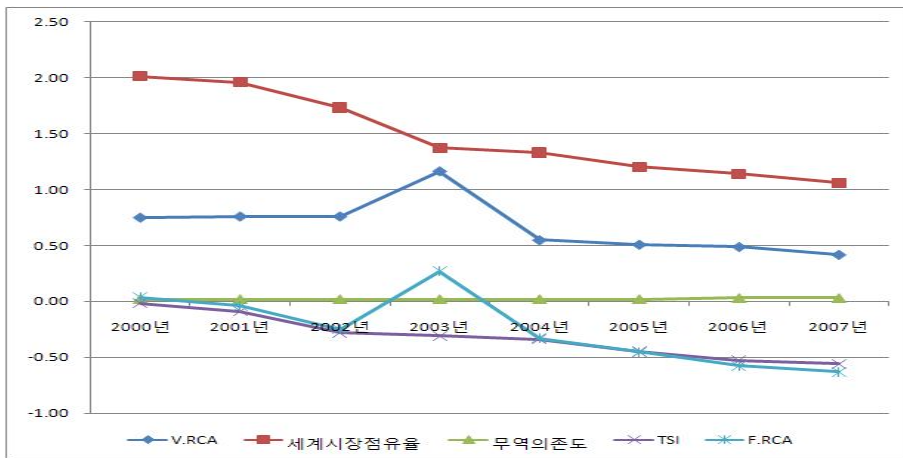
<그림 3-3> 운수서비스업 경쟁력 분석



나. 여행서비스 부문

여행서비스 분야는 TSI가 2000년 -0.02에서 2007년 -0.56까지 하락하였고, V.RCA도 2003년 비교우위 수준인 1.16까지 올라갔으나 2004년 이후 감소추세가 강해져 2007년 0.42까지 감소하였다. F.RCA는 2000년 비교우위 수준인 0.04에서 2003년 0.27로 상승하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행서비스분야는 2007년 수출은 61.3억 달러, 수입 219.7억 달러로 서비스분야에서 적자가 큰 항목이다. <그림 3-4>에서도 무역의존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이 우하향 기울기값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한국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비교열위 분야로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4> 여행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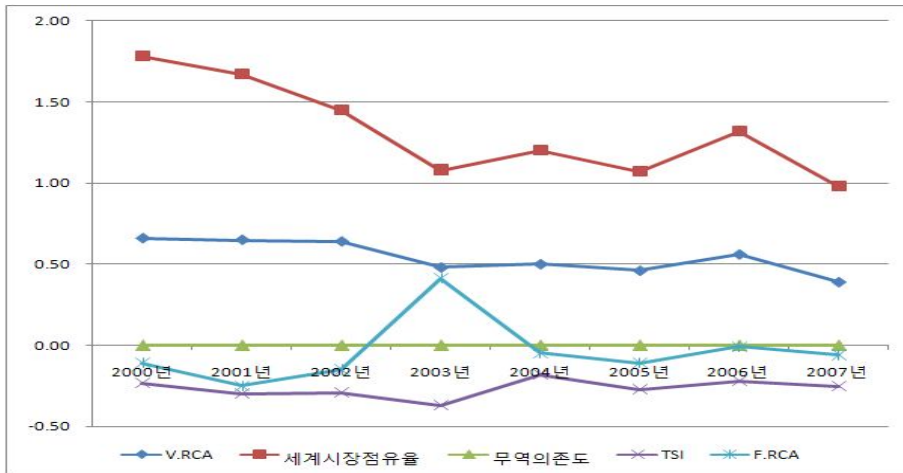
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부문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기울기값을 가지고 있다. F.RCA 또한 성장이 아닌 둔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무역의존도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TSI의 경우 음(-)의 값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는 수출증가

율과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F.RCA 지수들의 움직임은 0에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수출이 감소가 수입감소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경쟁력이 다른 지수들의 분석결과와 같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5> 커뮤니케이션부문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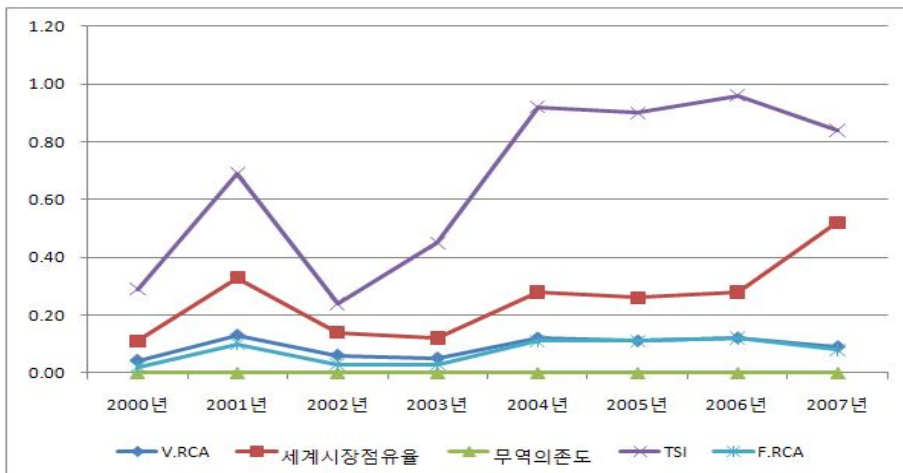


라. 건설서비스 부문

건설서비스 부문은 V.RCA는 0.1대의 수준, F.RCA도 0.1대의 등락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에 있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TSI는 1에 가까워 우리나라 수출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세계시장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서비스의 경우 2006년 수출

1.3억 달러 2007년 1.2억 달러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반면에 수입의 경우 2006년 0.03억 달러, 2007년 0.11달러를 기록하여 무역특화지수, V.RCA, F.RCA 지수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2000년 대비 2007년 2배이상 확대되었다는 점,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출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6> 건설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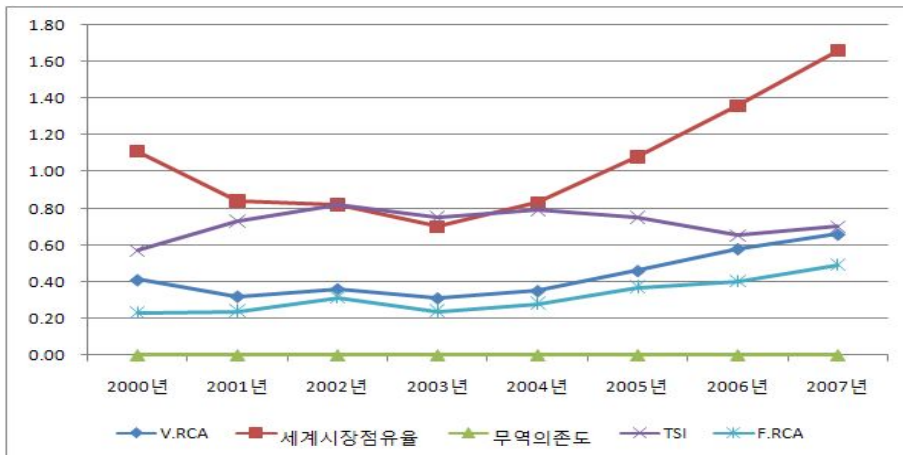


마. 금융서비스 부문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부문의 수출경쟁력은 분석방법론 모두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RCA 보다 F. RCA가 높은 것은 수입금액이 작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략산업화하여 특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수출과 수입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세계경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민감한 부문인 것을 의미한다. 즉 세계 경제의 변동에 따라 수출과 수입

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약 7배 정도의 시장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F.RCA도 높게 나타남으로 이는 금융서비스 부문이 수출경쟁력과 수입경쟁력이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7> 금융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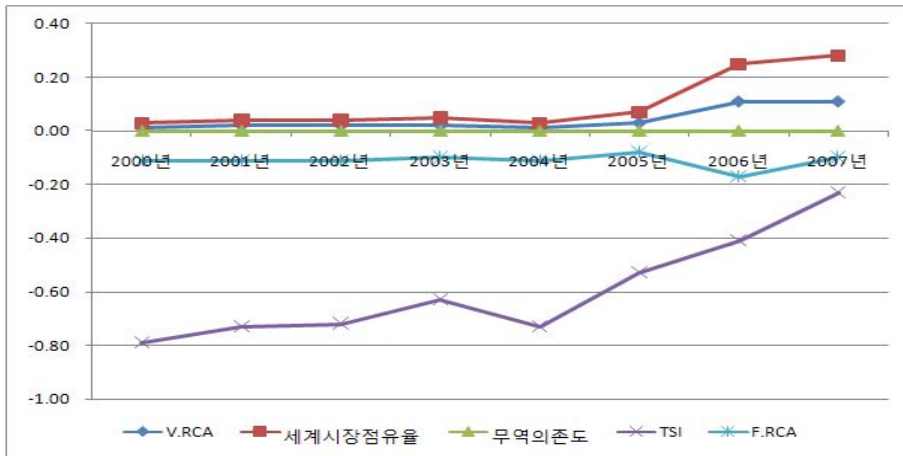


바.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의 분석결과는 지수별로 뚜렷한 추세가 나타난다. 먼저,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2000년 비교열위 수준인 -0.79 에서 2007년 -0.23 까지 개선되었으며, 세계시장점유율 또한 2005년부터 개선되고 있으며, V.RCA도 동년부터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RCA는 2006년부터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원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은 0.57억 달러, 2.48억 달러, 3.40억달러로 증가폭이 큰 것을 반영하며, 수입은 1.83억 달러에서 수입 5.98억 달러, 수입 5.44억 달러로, 수출와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지만 수입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부문

은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8>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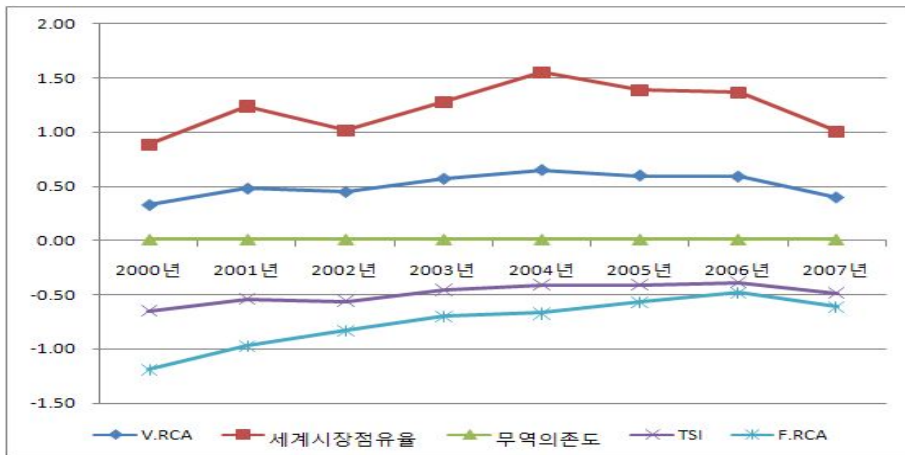


사. 로열티와 라이선스 부문

로열티와 라이선스부문은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세계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세계시장점유율과 V.RCA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TSI와 F.RCA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에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TSI와 F.RCA는 악화되어야 된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2006년의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5년 26.5억달러에서 26.0억달러로 감소하였기에 TSI와 F.RCA가 개선되었다. 둘째, 2007년의 경우 서비스수지가 33.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도, F.RCA의 악화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세계 전체 수입시장에서 로열티와 라이선스부문의 수입성장률은 감소한 반면 로열티와 라이선스의 수출성장

률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F.RCA의 RMA가 오히려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즉, 로열티와 라이선스부문의 수출경쟁력은 세계시장점유율과 V.RCA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이 부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로열티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향후 이 부문의 비교열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9> 로열티와 라이선스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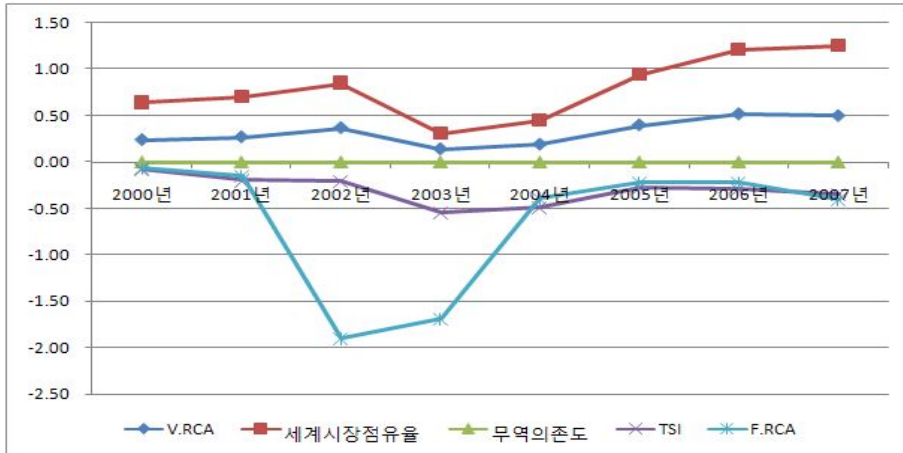


아.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부문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부문은 2003년을 기점으로 세계시장점유율과 V.RCA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SI와 F.RCA의 2002년과 2003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비스 수지는 -0.68억달러, -0.99억달러, -1.85달러로 적자폭이 상승하였고, 개인·문화·오락서비스산업의 전체 수입규모의 증가율이 수출규모의 증가율보다 낮아서 F.MCA 지수가 하락하였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출은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지

원, 서비스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비교우위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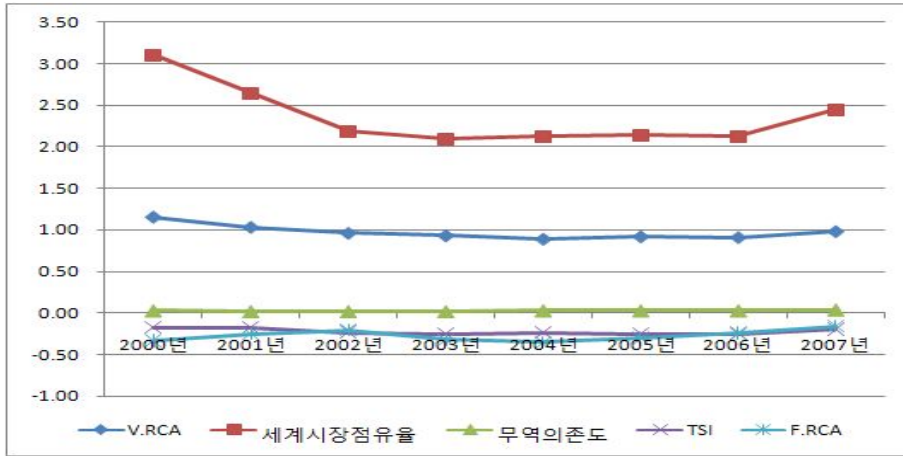
<그림 3-10> 개인·문화오락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자. 기타비즈니스서비스 부문

기타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은 수출과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서 가장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V.RCA가 2007년에 0.98을 기록하여 비교우위군에 속하는 서비스분야이다. 그러나 TSI, F.RCA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적자가 큰 분야이다. 세계시장점유율의 변화가 2007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만 TSI와 F.RCA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수입을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한다면 수출증가로 인해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서비스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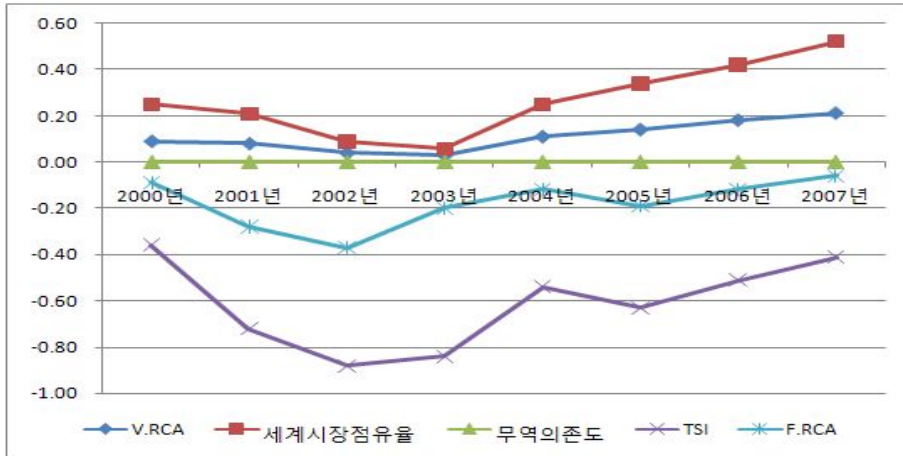
<그림 3-11> 기타비즈니스 서비스부문 경쟁력 분석



차. 보험서비스부문

보험서비스부문의 세계시장점유율과 무역의존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TSI의 경우 2002년 수출이 0.37억 달러, 수입은 5.71억 달러로 -0.88까지 낮아졌으나, 2005년 1.69억 달러 수출, 수입 7.33억 달러로 -0.63, 2007년에는 4.15억 달러, 수입 10.0억 달러로 -0.41 기록하였다. 보험서비스는 수출이 늘어나서 수입 영향력을 감소시켜 TSI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V.RCA지수와 F.RCA가 2005년부터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 0.68억 달러에서 2007년 4.15억 달러로 6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2000년 1.46억 달러에서 2007년 10.0억 달러로 684%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지수들을 살펴볼 때 보험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지원으로 비교중립에서 비교우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12> 보험서비스 부문 경쟁력 분석



제3절 OECD 회원국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V.RCA를 이용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OECD 회원 30개국에 대한 2007년 기준 V.RCA 지수는 <표 3-4>와 같다. V.RCA는 1보다 클 때 비교우위가 있으며 1보다 큰 우리나라 서비스 비교우위 부문은 운수서비스만 존재한다. 기타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0.98로써 비교우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수서비스는 3위 금융은 6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에 속하였다. 보험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에서는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V.RCA 지수는 0.21로써 이러한 이유는 수출의 규모가 작을 때, 수입 규모가 훨씬 작을 경우 무역특화지수에서는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지만 V.RCA의 경우 세계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 전체수출금액의 비중을 분석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경우이다. 또한 여행, 커뮤니케이션, 건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도 전체 26, 27위의 수준으로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 로얄티,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부문

은 비교중립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OECD 회원 30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야 경쟁력 비교

(2007년, V.RCA)

	운수	여행	커뮤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로알티	기타	개인	평균
OECD 평균	1.23	1.23	1.03	0.99	0.97	0.66	0.99	0.52	0.92	1.01	0.95
G7평균	0.98	1.00	1.08	1.84	0.80	0.83	0.67	1.17	1.12	1.07	1.05
한국	2.48	0.42	0.39	0.09	0.21	0.66	0.11	0.40	0.98	0.50	0.62
우위정도	◎	▽	▽	▼	▼	●	▼	●	○	●	●
한국순위	3위	27위	27위	26위	19위	6위	27위	12위	15위	18위	27위
벨기에	1.53	0.60	2.20	0.62	0.40	0.49	0.78	0.30	1.24	0.33	0.85
캐나다	0.88	1.08	1.82	0.11	1.80	0.33	1.45	0.84	1.09	2.23	1.17
독일	1.16	0.72	0.98	2.58	0.84	0.56	1.15	0.50	1.34	0.35	1.02
프랑스	1.12	1.62	1.30	1.65	0.23	0.15	0.26	0.89	0.94	0.95	0.91
아일랜드	0.19	0.29	0.33	0.00	4.18	1.18	6.77	0.19	1.23	0.19	1.46
이탈리아	0.77	1.66	1.24	1.26	0.40	0.36	0.16	0.13	1.37	0.68	0.80
일본	1.59	0.32	0.19	3.63	0.33	0.50	0.15	2.62	1.09	0.08	1.05
룩셈부르크	0.26	0.27	1.45	0.34	1.14	6.98	0.42	0.09	0.43	0.67	1.21
네덜란드	1.20	0.52	1.69	1.03	0.17	0.16	1.18	1.79	1.48	0.42	0.96
스페인	0.81	1.95	0.59	1.47	0.39	0.48	0.84	0.06	0.93	0.90	0.84
스웨덴	0.85	0.83	1.26	0.74	0.46	0.31	2.11	1.09	1.53	0.37	1.03
스위스	0.40	0.80	0.72	3.32	9.72	1.41	3.69	0.00	0.09	0.00	1.76
영국	0.57	0.58	1.27	0.32	1.28	2.66	1.02	0.78	1.24	0.94	1.37
미국	0.76	1.05	0.79	0.11	0.66	1.24	0.53	2.44	0.76	2.23	1.08
호주	0.88	2.41	0.67	0.13	0.47	0.22	0.64	0.25	0.58	0.88	0.71
오스트리아	1.06	1.49	1.35	1.13	0.75	0.28	0.69	0.20	1.17	0.32	0.84
터키	1.05	2.81	0.80	1.36	0.71	0.14	0.01	0.00	0.03	2.38	0.93
체코	1.44	1.69	1.51	0.82	0.02	0.18	0.96	0.03	0.80	0.79	0.82
핀란드	0.69	0.54	0.83	0.73	0.19	0.19	1.62	0.79	2.31	0.06	0.80
그리스	2.64	1.58	0.48	0.38	0.28	0.04	0.11	0.02	0.22	0.36	0.61
헝가리	0.94	1.21	1.29	1.05	0.04	0.16	0.87	0.79	1.19	5.71	1.33
멕시코	0.55	3.17	1.02	0.00	3.55	0.00	0.00	0.10	0.00	1.22	0.96
아이슬란드	2.22	1.06	0.29	0.00	0.17	0.01	0.86	0.00	1.02	0.29	0.59
뉴질랜드	1.04	2.53	0.92	0.03	0.11	0.09	0.48	0.22	0.42	1.62	0.75
노르웨이	2.32	0.46	0.68	0.41	0.19	0.26	0.95	0.20	1.23	0.76	0.75
폴란드	1.57	1.61	0.79	2.55	0.02	0.12	0.47	0.05	0.81	0.47	0.85
포르투갈	1.24	1.91	1.65	1.60	0.18	0.15	0.24	0.07	0.76	0.80	0.86
슬로바키아	1.56	1.25	1.63	0.78	0.10	0.41	0.61	0.31	0.72	3.21	1.06
덴마크	3.17	0.44	0.69	0.21	0.19	0.04	0.46	0.48	0.61	0.66	0.70

주 : ◎ : 비교우위 ○ : 우위 ● : 비교우위중립 ▽ : 열위 ▼ : 비교열위

회원국과 비교는 운송의 경우 덴마크, 그리스에 이어 3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의 경우 멕시코, 터키, 호주, 뉴질랜드가 상위권에 속해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근접지역으로 하나의 여행권으로 통합되어 여행서비스 부문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점으로 여행 RCA지수가 3.17로써 1위를 차지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건설서비스 부문은 독일, 일본, 스위스 등 제조업 강국이 RCA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서비스의 경우 아일랜드, 스위스, 멕시코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금융의 경우 스위스, 룩셈부르크, 영국이 높았으며 룩셈부르크의 RCA지수는 6.97로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와 기타비즈니스는 유럽국가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부문은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기타비즈니스서비스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순이었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부문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 순이었다.

서비스산업 비교부문에 대한 평균 비교우위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절대 열위에 있는 산업군이 있는 경우 그 평균의 의미가 분명한 경쟁력을 의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0개국의 평균을 조사하여 <표 3-3>에 첨부하였다. G7 국가들 중 RCA가 1보다 크지 않은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하였다. G7 국가 중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영국(1.37), 캐나다(1.17), 미국(1.08)순이었다.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서비스수출 규모가 비슷한 벨기에(0.85), 아일랜드(1.46), 룩셈부르크(1.21), 스웨덴(1.03), 스위스(1.76), 호주(0.71), 오스트리아(0.84), 그리스(0.61), 노르웨이(0.75), 덴마크(0.70)와 비교하여 한국은 최하위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는 G7국가들을 제외한 23개국의 각 서비스별 비교우위부분을 나타낸 표이다. 23개국 중 V.RCA지수가 1보다 큰 국가는 6개국 뿐이다.

또한 서비스부문별로 살펴보면, 덴마크와 한국, 룩셈부르크, 호주, 스페인

을 제외하고 모두 2개 이상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아일랜드는 보험, 금융, 컴퓨터, 스위스는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멕시코는 여행, 커뮤니티, 보험, 개인·문화·오락부문에서 특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아일랜드, 스위스, 멕시코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융의 경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특화가 되어 있고, 컴퓨터서비스의 경우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이 모두 우위에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일랜드는 보험, 금융, 컴퓨터에 특화, 룩셈부르크는 금융에 특화,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로알티에 특화, 스위스는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에 특화, 멕시코는 보험서비스에 특화, 덴마크는 운송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무역 수출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5> G7국가를 제외한 회원국 각국의 비교우위 분석(2007년)

	운수	여행	커뮤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로알티	기타	개인	평균
한국	◎										
벨기에	○		◎						○		
아일랜드					●	○	●		○		○
룩셈부르크						●					○
네덜란드	○		○	○			○	○	○		
스페인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호주		◎									
오스트리아	○	○	○	○					○		
터키	○	◎		○						◎	
체코	○	○	○								
핀란드							○		◎		
그리스	◎	○									
헝가리		○	○	○					○	●	○
멕시코		●	○		●					○	
아이슬란드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
덴마크	◎										

주 : ○ = 1.99>RCA>1.00, ◎ = 2.99>RCA>2.01, ● = 3>RCA
 자료 : 저자 작성.

2. F.RCA를 이용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F.RCA의 경우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전체 서비스산업의 수입과 특정 상품의 전체 수입을 지수에 사용함으로써 무역특화지수와 V.RCA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0보다 클 때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3-6>은 페트로와 허바드의 F.RCA 지수를 OECD 회원국 30개국의 2007년 수출입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이다.

<표 3-6> OECD 회원 30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야 경쟁력 비교
 (2007년, F.RCA)

	운수	여행	커뮤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로얄티	기타	개인	평균
OECD 평균	0.12	0.20	0.02	-0.01	-0.04	-0.53	0.02	-0.33	-0.01	-0.22	-0.08
G7평균	-0.06	-0.07	0.11	0.07	-0.08	0.09	-0.21	0.22	0.11	-0.09	0.01
한국	1.08	-0.63	-0.06	0.08	-0.06	0.49	-0.10	-0.61	-0.16	-0.41	-0.04
우위정도	◎	▼	●	○	●	○	●	▼	●	▼	●
한국순위	1위	27위	17위	12위	14위	2위	10위	22위	21위	17위	13위
벨기에	0.34	-0.35	0.46	-0.08	0.18	-0.27	-0.22	-0.12	0.14	-0.25	-0.02
캐나다	-0.08	-0.15	0.90	-0.03	0.27	-0.52	0.61	-0.69	0.37	0.16	0.09
독일	0.15	-0.56	-0.08	0.35	0.56	-0.03	-0.30	-0.12	0.32	-0.53	-0.02
프랑스	-0.08	0.50	0.47	0.62	-0.13	-0.45	-0.28	0.31	-0.20	-1.02	-0.03
아일랜드	0.06	-0.08	-0.16	-0.01	1.88	-0.20	6.50	-3.93	-0.62	0.05	0.35
이탈리아	-0.17	0.76	-0.23	-0.53	-0.19	0.12	-0.30	-0.09	-0.26	-0.67	-0.16
일본	0.21	-0.39	-0.08	0.27	-0.28	0.02	-0.61	0.81	0.09	-0.63	-0.06
룩셈부르크	0.06	-0.11	0.32	-0.74	0.30	-4.70	-0.14	-0.08	-0.22	-0.66	-0.60
네덜란드	0.30	-0.26	0.11	0.15	-0.06	-0.32	-0.60	0.12	0.04	-0.17	-0.07
스페인	-0.22	1.16	-0.64	0.26	-0.20	-0.60	0.00	-0.50	-0.50	-1.09	-0.23
스웨덴	0.18	-0.34	-0.35	-0.37	0.29	-0.09	0.08	0.47	0.00	-0.08	-0.02
스위스	-0.10	-0.58	-0.37	2.03	8.39	-6.21	2.50	-0.05	0.07	0.00	0.57
영국	-0.20	-0.82	-0.15	-0.18	1.05	1.29	0.12	-0.03	0.27	0.18	0.15
미국	-0.28	0.19	-0.06	0.00	-1.85	0.23	-0.73	1.36	0.16	1.86	0.09
호주	-0.52	0.94	-0.01	0.13	0.03	-0.04	-0.39	-0.94	0.16	-1.08	-0.17

오스트리아	-0.22	0.41	0.00	-0.83	-0.26	-0.09	-0.50	-0.42	0.34	-1.38	-0.30
터키	-0.71	1.97	-0.01	0.96	-1.51	-0.67	-0.04	-0.69	-0.26	1.80	0.08
체코	0.36	0.67	0.03	0.02	-0.36	-0.87	-0.73	-0.71	-0.32	-0.10	-0.20
핀란드	-0.37	-0.19	0.05	-0.19	0.08	-0.01	-0.52	-0.26	0.67	-0.11	-0.08
그리스	0.42	0.90	-0.64	-0.05	-1.05	-0.43	-0.50	-0.47	-0.19	-1.07	-0.31
헝가리	0.10	0.46	-0.11	-0.13	-0.25	-0.22	-0.48	-1.07	-0.09	0.76	-0.10
멕시코	0.07	1.77	0.85	0.00	-6.62	-0.23	0.00	0.10	-0.06	0.34	-0.38
아이슬란드	0.94	-0.72	-0.33	-0.54	-0.11	-0.13	0.61	-0.03	0.20	-0.18	-0.03
뉴질랜드	-0.31	1.18	-0.05	-0.56	-0.47	-0.17	-0.60	-0.80	-0.23	1.17	-0.08
노르웨이	0.91	-0.90	0.21	0.32	0.10	-0.14	-0.39	-0.07	0.36	-0.41	0.00
폴란드	0.56	0.31	-0.38	0.18	-0.40	-0.26	-0.69	-1.02	-0.09	-0.55	-0.23
포르투갈	-0.08	0.79	0.03	0.85	-0.23	-0.28	-0.63	-0.46	-0.09	-2.14	-0.22
슬로바키아	0.36	0.31	0.72	-2.20	-0.27	-1.08	-0.56	0.00	-0.15	1.47	-0.14
덴마크	0.88	-0.21	0.02	0.00	-0.03	-0.05	-0.49	0.08	-0.08	-1.72	-0.16

주 : ◎ : 비교우위 ○ : 우위 ● : 비교우위중립 ▽ : 열위 ▼ : 비교열위

운수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F.RCA 지수가 1.08로서 유일하게 1.00을 초과하는 국가로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V.RCA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3.17→0.88), 그리스(2.64→0.42)는 F.RCA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덴마크와 그리스는 운수서비스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한국(2.48→1.08)의 경우 V.RCA에서도 3위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한국은 운수서비스 부문에서 수출과 수입 부문에서 모두 경쟁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한국의 건설서비스 부문은 V.RCA 0.09, F.RCA 0.08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0.01 수준의 수입이 발생하여 V.RCA에서는 비교열위 수준이면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27위를 차지하였지만 F.RCA의 경우 비교우위 수준에서 우위수준이며 12위 수준으로 실제적인 금융부문에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금융부문에서도 V.RCA는 0.66 비교우위 중립수준이지만, F.RCA에서는 0.49로 2위 수준이다. 그러나 여행서비스의 경우 F.RCA -0.63으로 V.RCA 0.42와 같이 OECD 회원국에서 27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가장 열위에 있는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F.RCA가 0보다 큰 부문은 운수, 금융, 건설서비스 부문이었다.

F.RC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수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7>은 F.RCA 지수분석을 통한 비교우위 부문을 G7 국가를 제외하여 정리한 표이다. V.RCA 비교분석 표와는 다르게 많은 국가들에게서 상위수준 정도의 수출경쟁력이 나타나고 있다. V.RCA와 비교해서 분석하면, 한국의 경우 운수, 아일랜드의 경우 보험과 컴퓨터, 스위스는 건설, 보험, 컴퓨터, 호주와 터키, 뉴질랜드는 여행부문에서 멕시코는 여행과 보험에서, 슬로바키아는 개인, 덴마크는 운수에서 양 지수에서 모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G7국가를 제외한 회원국 각국의 비교우위 분석(2007년)

	운수	여행	커뮤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로알티	기타	개인	평균
한국	●			○		○					
벨기에	○		○		○				○		
아일랜드	○				●		●			○	○
룩셈부르크	○		○		○						
네덜란드	○		○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터키		●		◎						●	○
체코	○	◎	○	○							
핀란드			○		○				◎		
그리스	○	◎									
헝가리	○	○								◎	
멕시코	○	●	◎	○			○	○		○	
아이슬란드	◎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		●	
덴마크	◎		○	○				○			

주 : ○ = 0.50>FAH RCA>0, ◎ = 1.00>FAH RCA>0.51 , ● = FAH RCA>1.01
 자료 : 저자 작성.

제4장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이 미비한 이유는 첫째 국내 서비스시장이 각종 진입장벽에 의해 수입이 사실상 거의 차단되어 있으며, 외국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 동안 정부가 제조업 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옴으로써 국내 서비스시장의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는 우선 순위가 낮았기 때문이다.¹³⁶⁾ 그러나, 현재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수출상황에서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정책적 지원과 수출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변화를 인식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 등의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을 유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금융, 세제, 교육 등의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대형화 및 동일 산업내 개별 기업간 제휴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시장 개척 등을 유도하는 정책들은 영세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제력 제고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전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육성 그리고 글로벌 진출 유도 등의 전략적 선택과 지원이 필요하다.¹³⁷⁾

본 장에서는 제5장에서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얻은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부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정책적 제언과 경쟁

136) 최봉현, 박정수, 전계서, p.7.

137) 하태경, 전계서, p.30.

력 강화방안을 두가지 접근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1절 실증분석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1. TSI, RCA지수 분석에 따른 비교우위산업의 전략화

전략적 무역이론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특화시키는 것으로 미국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게 전략적 무역이론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전략적 무역이론의 기본 배경인 보조금은 간접적인 형태로 여러군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리먼 브러더스파산 이후 마련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7,000억 달러 중 일부를 미국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GM 및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전용하였다. 유럽 국가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업체인 르노, 푸조 등에 대해 60억 유로 이상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영국 정부도 자동차업체에 대해 채무보증 및 대출지원 등 10억 파운드 수준의 자동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독일은 GM의 자회사인 Opel에 18억 유로의 조건부 금융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스웨덴도 사브와 볼보에 스웨덴 내에서 지출한다는 조건 아래 대출지원을 제

공하였다.138)

정부의 국가 경제 회복과 침체를 막기 위한 전체적인 지원은 보호무역 차원의 전략적 무역이론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보호주의의 이분법적 형태에서 벗어나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항공기,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등 미국산업의 경쟁력이 강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채택했던 분야의 무역정책들이 1980년 중반부터 경쟁국가의 동종산업에 대한 무역정책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변환되었다.139)

이러한 배경에는 수요가 단일시장으로부터 통합된 무역수요로 그 성격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즉, 수요가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통합됨으로써 정부개입이 큰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140)

고정민 외(2005)는 산업의 매력도, 타산업에의 파급효과, 한국의 미래 잠재력, 현재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성장성, 고용창출, 해외진출, 선진국과 비교, 국가적 관심 및 투자정도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전략분야를 <표 4-1>와 같이 제시하였다.

138) 송원근, 전게서, p.32.

139) Helen V. Milner and David B. Yoffie, "Between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strategic trade policy and a theory of corporate trade dema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issue 02, 1989: 김관옥, 전게논문, p.290에서 재인용.

140) 권영태, 전게논문, p.390.

<표 4-1> 전략 서비스산업의 선정

	산업의 매력도	타산업에의 파급효과	한국의 잠재력	현재의 경쟁력	선정
도소매(유통)	△	△	△	△	
교통·운수	△	△	△	△	
금융·보험	△	○	△	△	
부동산	x	x	△	△	
비즈니스서비스	○	○	△	x	V
통신·방송	○	○	○	○	
교육	△	△	△	x	
의료	○	x	○	△	V
문화·관광	○	△	○	△	V

주 : - 평가가 높은 순서대로 > > >

- 산업의 매력도는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활동동향 등을 활용.
- 타산업에의 파급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영향력계수 등을 활용.
- 관광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구성.
- 금융과 정보통신 서비스는 유망분야지만, 공적자본의 투약, 현재 구조조정 등으로 제외, 정보통신은 국가정책상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 제외.

자료 : 고정민 외, 전계보고서, p.6.

<표 4-1>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실시한 경쟁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였다. <표 4-2>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V.RCA와 F.RCA의 비교우위 지수이다.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부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비교우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은 커뮤니케이션, 보험,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이다.

<표 4-2> 한국의 서비스분야별 V. RCA와 F.RCA 비교

	운송	여행	커뮤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로알티	기타	개인	평균
V.RCA	2.48	0.42	0.39	0.09	0.21	0.66	0.11	0.40	0.98	0.50	0.62
우위정도	◎	▽	▽	▼	▼	●	▼	●	○	●	●
한국순위	3위	27위	27위	26위	19위	6위	27위	12위	15위	18위	27위
F. RCA	1.08	-0.63	-0.06	0.08	-0.06	0.49	-0.10	-0.61	-0.16	-0.41	-0.04
우위정도	◎	▼	●	○	●	○	●	▼	●	▼	●
한국순위	1위	27위	17위	12위	14위	2위	10위	22위	21위	17위	13위
비교우위	◎			○		○			●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부문 전략적 산업군으로 운수, 금융, 보험, 건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다.

<표 4-3> 전략적 산업군의 선정

	매력도	타산업에의 파급효과	잠재력	현재의 경쟁력	TSI	V. RCA	F. RCA	선 정
교통·운수	△	△	△	△	○	○	○	V
금융·보험·건설	△	○	△	△	○		○	V
비즈니스서비스	○	○	△	x		○		V
통신·방송	○	○	○	○		●		V

자료 : 고정민 외, 전계보고서, p.6과 저자 재작성.

또한 정유 및 화학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정비 관련 서비스, 건축 설계, 기계 설계, 컴퓨터 디자인, 웹 디자인 등 우리나라는 각종 제조업 설비의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설비의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 수출 비즈니스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고속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서비스 분야의 개척을 모색할 수도 있다.¹⁴¹⁾

2.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강화

서비스산업의 대외시장개방을 통하여 개방경제의 이점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한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증진이라는 또 다른 면의 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시장보호의 차원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

141) 이지형, 전계서, p.3.

단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이 유치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에는 시의적절하지 못한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산업의 대외종속을 가속화할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통신 등 기간산업의 성격을 가진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의한 피해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해당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고용을 증진시키며,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이 고용 등을 통하여 국내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외국의 의료 및 교육기관들을 유치하여 차별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조기유학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고, 외국의 고급의료 서비스 수요 역시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생산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서비스혁신은 기존의 서비스제품을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원천은 우수한 서비스 인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등 기술적혁신과 서비스프로세스의 개선, 마케팅의 혁신, 조직혁신, 경영혁신 등 비기술적인 혁신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수입대체적인 정책을 통한 수입억제 보다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 마련 중인 수입대체적인 서비스산업정책은 그 유용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적 또는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WTO 환경하에서는 과거 제조업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 및 우회적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¹⁴²⁾

Guerrieri and Meliciani(2005)의 연구에서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고기술 제조업의 발전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상생의 기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정책입안자들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의 성장부진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전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즉,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경제 전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마저도 잠식할 우려가 있다. 향후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의 제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고도화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제조업을 보완·지원해 줄 수 있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즉 유통 및 물류, 금융 및 보험, 통신서비스, 법무·회계·경영컨설팅·엔지니어링·광고·디자인 등의 사업서비스를 적극 육

142) 윤상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정책적 함의”, 「국제금융위협관리」 제9권 제3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8.9, pp.14-17.

성하여야 할 것이다.¹⁴³⁾

제조업의 성공적인 추격 전략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개방을 통해 이들분야에 대한 제2의 추격전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비즈니스허브로 한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서비스는 고도의 지식축적과 경제·사회 환경에 대한 상황적 고객 맞춤형 이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장기의 시간지평을 요구한다. 따라서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일단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수확체증의 논리가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후발 주자가 쉽게 추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산업발전의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것이다.¹⁴⁴⁾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의 확충이 필요하고 동시에 과거 공공성이라는 전제하에서 규제되어 왔던 사회서비스업과 관광 및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공공성과 사회 후생의 극대화 그리고 경쟁력확보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업의 각 부문을 보면 운수, 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비중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공공부문 비중의 하락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서비스 비중의 하락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의 해외이전은 국내 총부가가치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143) 이건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IET산업경제」 통권 71호, 산업연구원, 2004.8, pp.44-45.

144) 정준호, “한국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동향과 전망」 통권 68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6.10.1, p.69.

보면 더 이상 저임금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유입 산업은 주로 고부가가치분야 및 서비스 분야이므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부문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첨단분야 연구소나 기업의 유치에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기술, 경영, 마케팅 등의 파급효과, 전후방 연관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고용증가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¹⁴⁵⁾

4. 서비스업체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전문화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업체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고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근원적 원인은 서비스업의 수익성이 낮아 자본이 유입되지 못하는 서비스업계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도 영세구조의 탈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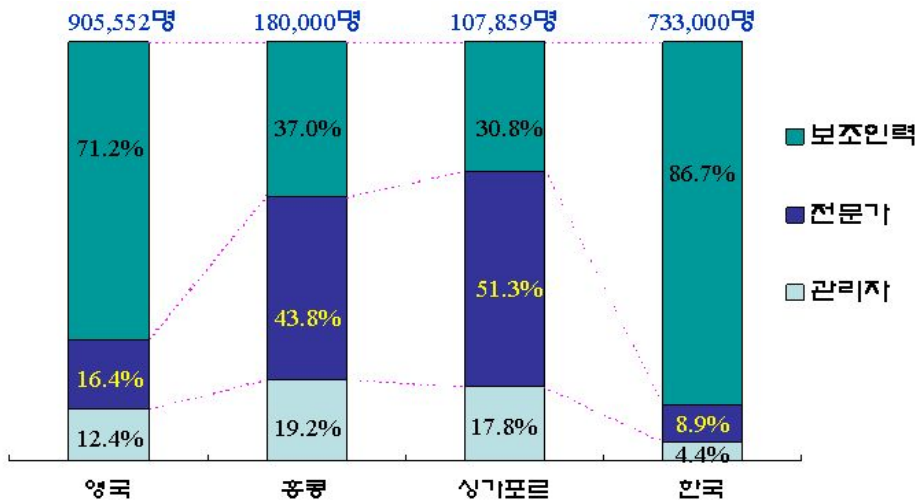
서비스산업에서 경쟁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개입 또는 규제로 인하여 업체당 당면하는 시장의 규모가 협소해져 대형화가 지체되는 것 또한 서비스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그동안 서비스업체들에 대해서 차입 중심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 통합이 추진될 경우, 자금공급의 형태가 다양해짐으로써 서비스업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⁴⁶⁾

145) 강성진, 서상원, 전개서, p.172.

146) 김주훈, 차문중,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정책포럼」 제200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4.14, p.10.

또한 금융을 중심으로 로얄티, 기타서비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에 종사자의 전문화도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F. RCA에서 향후 비교우위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경우 전문인력 수급이 선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4-1>은 주요국 금융부문 인력을 보조인력, 전문가, 관리자로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의 보조인력 수준의 전체 금융부문의 구성비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조인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전문가의 구성비가 16.4%로 우리나라의 2배라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

<그림 4-1> 주요국의 금융부문 인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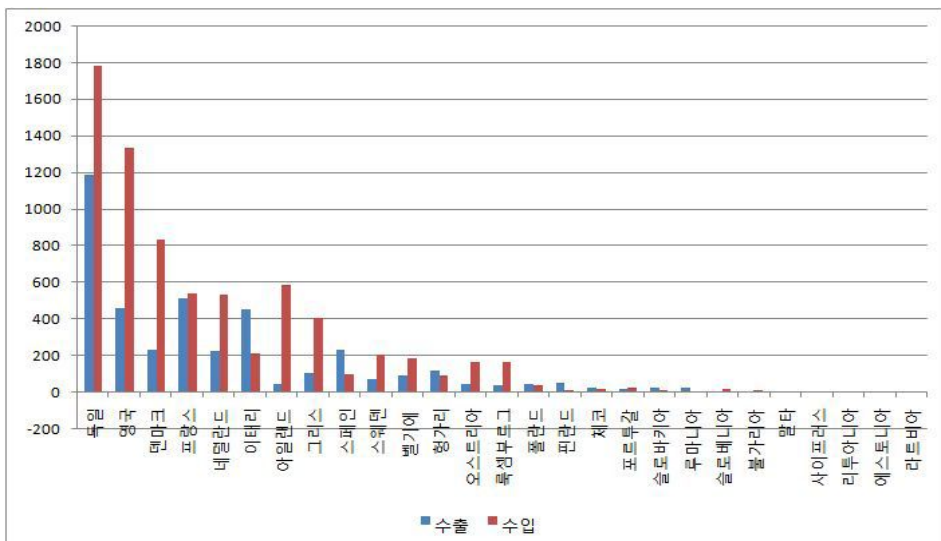
주: 1) 영국은 1998년, 홍콩은 2001년, 싱가포르는 2002년, 한국은 2003년 기준.
 2) 관리자: Managers 및 Administrators 포함.
 3) 전문가: Professionals, Associate Professionals 및 Skilled Traders 등 포함.
 4) 보조인력: 일반사무, 창구영업, 보안 및 일반관리 인력 등.
 자료: 한국금융연구원.(김주훈, 차문중, 전계보고서, p.9.)

5. 신규 수출시장의 확대와 집중화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특정국가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2>는 2007년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현황이다.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수출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교역국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회원국 중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에 대한 운수서비스 수출은 비교분석 결과 그 가능성이 높으며 동유럽 국가에 대한 건설서비스 부문도 비교우위를 통한 시장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한국의 EU 회원국별 서비스교역량 비교(2007년)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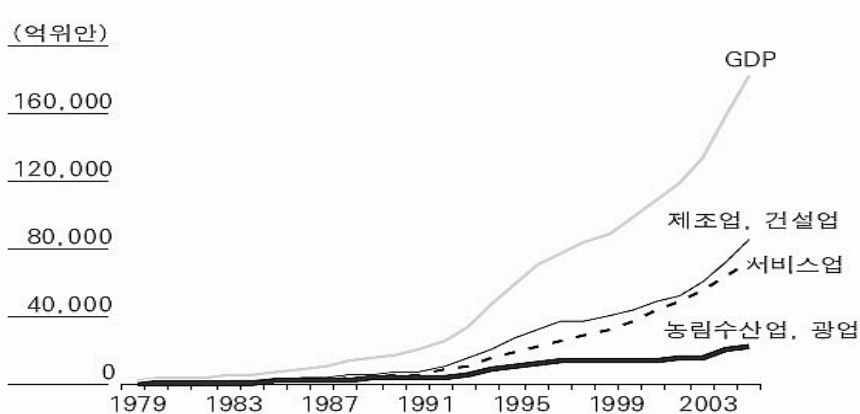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강유덕, 전계보고서, p.6에서 재인용.

서비스시장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서비스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있었던 지난 1979년부터 2005년까지 GDP 증가율은 연평균 9.6%를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산업별로는 같은 기간 농업 등 1차 산업의 경우 4.6%,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11.3%, 서비스 등 3차 산업은 10.7%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였다. 제조업이 그간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서비스산업도 경제 전체의 GDP 증가율을 넘는 속도로 그 규모가 꾸준히 커져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각 산업별 총생산 추이



자료 : 윤상하, 상계보고서, p.35.

이에 따라 중국경제 전체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GDP 규모가 경상가격 기준으로 1979년 4,063억 위안에서 2005년 183,085억 위안까지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산업 총생산은 같은 기간 890억 위안에서 72,968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이의 비율을 통해 서비스산업 총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에는 21.9%였으나 2005년에 39.9%까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의 일치

를 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산업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산업의 양과 질 모두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서 보았듯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크게 성장해 왔지만 아직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서비스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소위 고급 서비스산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중국정부가 구사해 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정책과 서비스 부문의 무역, 투자 등에 대한 견고한 장벽 유지 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2월,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산업의 발전가속에 관한 몇 가지 의견(加快發展服務業的若干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경제목표와 함께 향후 서비스산업 육성을 한층 강화해 간다고 하는 중국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으며, 2006년 11월에 공표된 「외자이용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외자도입 확대 계획을 포함시켰다.¹⁴⁷⁾

중국 정부도 서비스장벽의 제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의 변화, WTO 가입 등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이 바뀌면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국시장, 특히 중국 서비스시장은 향후, 관련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분명 기회가 될 것이다.¹⁴⁸⁾

147) 이진우,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통권 371호, 산업연구원, 2007.12.26, pp.6-7.

148) 윤상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 주간경제」 912호, LG경제연구원, 2006.11.25, pp.35-37.

제2절 정책적 제언

1. FTA 협상의 전략화

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비스 수출이 증대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및 공급 제한, 인허가를 위한 과도한 자격요건 요구 등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되어 서비스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기업이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방법은 FTA의 활성화 방안이다. FTA의 타결과 체결은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제도를 개선시켜 거래비용을 낮추고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를 증대시켜 서비스 교역 확대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대 한국 외국인 투자는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발효 1년 전에 비해 약 70%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수출은 금융, 보험, 운수, 기술 서비스업이 對ASEAN은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FTA 발효 이후 투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발효 전과 후의 양국간의 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FTA 발효 이후 투자 변화 추이

(단위 : 천달러)

대상국 (발효일)	구분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칠레 (2004.4)	외국인투자	0	44	7,089	385	0	0
	해외직접투자	500	14,800	2,287	3,499	14,350	19,480
싱가포르 (2006.3)	외국인투자	307,095	356,513	603,381	405,562	845,856	
	해외직접투자	125,060	407,083	323,128	687,238	718,344	
EFTA (2006.9)	외국인투자	214,365	249,398	293,693	90,133		
	해외직접투자	7,935	4,181	69,980	1,205,892		
ASEAN (2007.6)	외국인투자	193,425	157,857	114,399			
	해외직접투자	1,529,440	3,128,485	7,154,115			

자료 : 지식경제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 협상 추진 방향은 협상 상대국에 既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및 향후 진출 가능 분야를 파악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협상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국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이끌어 내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도모를 도모하고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 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 확대 및 사증면제 추진을 해야 한다.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지식을 축적시켜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한다. 경쟁이 불가피 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 내부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서비스 협상 이후 외국 서비스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서비스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적 입장에서 수립해야 한다.¹⁴⁹⁾

또한, 한·미 FTA 타결 후 한-EU, 한-캐나다 등 역외국과의 FTA 논의가

149) 송인혜,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8.11, pp.13-14.

더욱 활성화되는 현상은 지역초월 양자주의가 상당 기간 한국 통상정책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각 대륙의 주요 수출대상국 또는 신흥시장들과 양자 FTA를 위한 공식협상에 돌입했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의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의 FTA 대상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고 무역자유화의 폭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미, 한-EU,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전반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한 조정과 보상의 메카니즘을 확립하여 자유무역의 충격을 흡수해 나간다면, 국내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FTA효과로서의 서비스무역의 활성화가 확대되어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¹⁵⁰⁾

2. 통상정책의 체제변화

통상정책은 “자국의 비교우위체제를 토대로 교역상대국의 특성과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특정 경제목적 달성을 위해 양국간 또는 다국간 무역관계의 이해조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⁵¹⁾

한국의 통상정책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여건 변화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WTO 및 APEC의 무역 자유화 지체, FTA 등 지역주의, 다자주의, 지역 불력화 심화 등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무역

150)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1, pp.185-186.

151) 채욱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2, p.92.

입국형’에서 새로운 통상 질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는 교역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원천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이 공산품에서 서비스, 문화상품을 확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요소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국내 성장동력 확충을 중요한 통상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부품 및 소재산업,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⁵²⁾

<표 4-5> 무역입국형과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의 비교

	무역입국	복합통상국가
세계 경제환경	- GATT/WTO · 다자주의	- WTO 및 무역블록 ·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혼재
교역대상	- 공산품	- 공산품, 서비스, 지식, 기술 - 문화상품
경쟁원천	- 생산요소 가격 · 노동력, 자본	- 생산요소의 질 · 노동력, 자본, 지식, 기술
통상정책의 목표	- 공업 입국 · 수출확대 - 국내 경제 안정 · 유치산업 보호 · 국제수지 개선	- 공업 및 서비스산업국가 · 중국과의 격차유지 · 공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 교역 및 투자의 균형확대 · 내외국기업 차별 폐지 - 국내 성장동력 육성 · 고용창출, 산업구조조정

자료 : 박변순, 상계서, p.43.

3.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강화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전략적 업종 선정 및 육성을 통하여

152) 박변순,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 「ISSUE PAPER」 2006년 8월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8, p.43.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성장동력화 기준과 이와 연계한 전략적 업종의 선정기준으로는 우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산업화 대상 업종은 먼저 소비를 자극하고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시장을 뛰어 넘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외국기업의 서비스 공급을 국내 서비스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장 이후 수출가능성 또는 수입대체효과가 크면서 한국경제가 지닌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정한 육성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수입대체적인 정책을 통한 수입억제 보다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마련 중인 수입대체적인 서비스산업정책은 그 유용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적 또는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WTO 환경하에서는 과거 제조업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 및 우회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⁵³⁾

153) 윤상철, 상계논문, pp.16-17.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이 미비한 이유는 첫째 국내 서비스시장이 각종 진입장벽에 의해 수입이 사실상 거의 차단되어 있으며, 외국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 동안 정부가 제조업 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옴으로써 국내 서비스시장의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는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제외한 잔여분(residuals)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서비스산업에는 기존의 단순 조립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의 경쟁우위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형적인 분야로는 수출 가능한 서비스업종인 금융, 관광, 국제물류, 사업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의료서비스 등도 부상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경공업은 감소하고 제조업은 더욱 발전하는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다행히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열위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구조하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는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변수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불안한 무역구조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수출금액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특화지수(TSI), 비교우위지수(RCA), 세계시장점유율(SH)는 오히려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서비스 수지는 1998년 고환율과 IMF 경제위기로 서비스수입이 감소하여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서비스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내수시장 부진과 환율상승의 효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수입 품목의 대체품목으로 전환된 경쟁력 강화가 없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비중이 낮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면 비교우위지수도 낮아지게 되고,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로 연결되어 결국 경상수지의 흑자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기인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은 고용악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악화, 서비스수지 만성적자, 연구개발 부진, 생산력 저하로 나타났다. 이에 2007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의 배경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해외이탈 서비스 소비의 국내전환 및 개방화 대비를 들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서비스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부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업종도 존재한다. 결국 서비스산업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수출상황에서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정책적 지원과 수출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변화를 인식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첫째, 국내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 등의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을 유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금융, 세제, 교육 등의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대형화 및 동일 산업내 개별 기업간 제휴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시장 개척 등을 유도하는 정책들은 영세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제력 제고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전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육성 그리고 글로벌 진출 유도 등의 전략적 선택과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대외시장개방을 통하여 개방경제의 이점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한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증진이라는 또 다른 면의 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시장보호의 차원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의 확충이 필요하고 동시에 과거 공공성이라는 전제하에서 규제되어 왔던 사회서비스업과 관광 및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공공성과 사회 후생의 극대화 그리고 경쟁력확보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비스 수출이 증대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및 공급 제한, 인허가를 위한 과도한 자격요건 요구 등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되어 서비

스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기업이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방법은 FTA의 활성화 방안이다. FTA의 타결과 체결은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제도를 개선시켜 거래비용을 낮추고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를 증대시켜 서비스 교역 확대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첫째,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수입대체적인 정책을 통한 수입억제보다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 자연환경적 또는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30개국에 대한 서비스산업 수출입 현황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첫째, 연구 범위가 OECD 회원국 30개국에 한정되어 있어 세계전체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30개국에 한정되었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이 현재 OECD 회원국에 가입 되지 않아 세계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수출과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중국이 포함된 OECD회원국과의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국제경쟁력분석을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서비스산업의 교류현황과 서비스산업 수출 활성화에 관한 연구, OECD 비회원국과의 한국의 서비스산업 분석을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진, 서상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우리나라 FDI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7.10,
- 고정민 외,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CEO Information」 51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8.3
- _____, 김정우, “특성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조직 연구」 제16집 제2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08.6.
- _____, “정책목표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2.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년 과학기술 정책 10대 과제”, 「STEPI INSIGHT」 제13호, 2009.1.6
- 권영태,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 연구개발(R&D)협력 촉진정책”, 「경제연구(구 경제학논집)」, 제6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1997.
- 김관옥,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2.9.
- 김주훈, 차문중,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정책포럼」 제200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4.14.
- 김진혁 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과제”, 「CEO Information」 70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5.27
- 김학민 외, “서비스무역 연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 김현정, 「서비스산업 비중상승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구조변화와 지속성장과제』, 한국은행, 2008.4.3.
- 김휘석 외,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와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KIET 산

- 업경제」 2007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07.4
- 도미니크 살바토레, 『International Economics, Eighth Edition - Vol.1 TRADE THEORY & POLICY』, 시그마프레스, 2009.1.5.
-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1.
- 박문서,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1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06.
- 박종국, “산업조직이론을 응용한 전략적 무역정책과 시의일관성”, 「경제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2.
- 서동균,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RCA지수”,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2집, 한국항만경제학회, 1996.
-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5.
- 송의영, “전략적 무역이론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함의”, 「97 국제학술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1997.
- 송인혜,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8.11.
- 양홍석, “국제무역이론의 기원: 스미스, 리카도 및 스튜어트 이론의 비교”,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호, 한국경제사학회, 1999.
-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7.
- 유진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유창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영산논총」 vol.16, 영산대학교, 2006.
- 윤상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정책적 함의”, 「국제금융위험관리」 제9권 제3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8.9.

- 윤상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 주간경제」 912호, LG경제연구원, 2006.11.25.
- 윤상하, “서비스업 고용 흡수 여력 있다”, 「LG Business Insight」 1028호, LG경제연구원, 2009.2.16.
- 윤영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韓國行政研究」 제4권 제1호, 韓國行政研究院, 1999.
- 윤우진,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 이건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IET산업경제」 통권 71호, 산업연구원, 2004.8.
- _____,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통권 371호, 산업연구원, 2007.12.26.
- _____,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통권 371호, 산업연구원, 2007.12.26.
- 이건우, 장석인,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1999.
- _____, 『정책목표별 주요 서비스업 분류 및 서비스산업 지원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2003.
- 이기환, 『OECD 회원국의 보험산업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서원, “저생산성의 서비스산업, 해법은 없나”, 「LG 주간경제」 931호, LG경제연구원, 2007.4.11
- 이준엽, “한·중·일 산업내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연구”, 「韓國經濟研究」 제10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 이준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전략 및 정책 시사점”, 「기본연구 05-21」, 중소기업연구원, 2005.12.
- 이지형, “서비스 산업의 공동화와 비즈니스 기회”, 「LG주간경제」 987호, LG경제연구원, 2008.5.7.

- 이철, 이광재,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요인과 수출성과의 관계”,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8.
- 임혜란,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이념의 역할: 미·EU 통상마찰의 재조명”, 「EU학 연구」 7권, 1호, 한국EU학회, 2002.
- 정성진,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산업노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 산업노동학회, 1999.
- 정세은, “한중일 제조업의 전문화 및 집중화 추이”, 「東北亞經濟研究」 第20卷 第1號, 韓國東北亞經濟學會, 2008.4.
- 정재환, “貿易環境變化에 따른 彈力的 貿易經營戰略에 관한 연구”, 「大韓經營學會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경영학회, 2006.4.8.
- 정준호, “한국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동향과 전망」 통권 68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6.10.1.
- 조동성, 『국가경쟁력: 선진국으로 가는 길』, 매일경제신문사, 1994.
- 조용수,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 주간경제」 881호, LG 경제연구원, 2006.4.26.
- 조현승,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2008년 12월호, 산업연구원, 2008.12.
- 주경원, “기술집약도에 따른 한국제조업의 장기적 수출경쟁력 변화”, 「국제 무역연구」 제8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2.4.
- 채욱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2.
- 최봉현 외,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8.12.
- _____, 박정수,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정책대응 방향”, 「KIET 산업경제」 2008년 6월호, 산업연구원, 2008.6.
- _____, 박정수,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KIET 산업경제」 2009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09.4.
- 최용재 외, 『한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 2008.12.

-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향연』, 도서출판 부키, 2009.4.10.
- 하태경,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824호, LG 경제연구원, 2005.3.2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MONTHLY BULLETIN」 November 2008, 한국은행, 2008.11.
- 현재운 외,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산업연구원, 1989.
- 황수경,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정책과제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 한국개발연구원, 2007.
- 황인성,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경제 전망』, 2008.5.29.
- Baldwin, R. E, "Are Economists' Traditional Trade Policy Views Still Vali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30(2), pp.804-829, June, 1992.
- Ballassa, Bela and Luc Bauwens, *Changing Trade Patterns in Manufactured Goods: An Econometric Investigation*, North Holland, 1998.
- Baumol, W.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Issue 3, 1967.
- Brander, J. A. and Barbara J. Spenc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 (1/2), 1985.
- Browning, H. L., and Singlemann, J.,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Labour Force: The Interac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Politics and Society*, Vol.8, 1978.
- Busch, Marc L., *Trade Warriors: State, Firms, and Strategic Trade Policy in High-Technology Competition*,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99.
- Calof, J. and P. Beamish, "Adapting to Foreign markets: Explaining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 1995.
- Calrk, Colin,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London, 1940.
- Cohen, Stephen, Joel Paul, and Robert Blecker, *Fundamentals of U.S. Foreign Trade Policy: Economics, Politics, Laws, and Issues*. Boulder: Westview press, 1996.
- Durkin, Joha T. and M. Krygier, "Differences in GDP Per Capita and the Share of Intraindustry Trade: The Role of Verically Differentiated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8(4), 2000.
- Elfring, T.,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dlershot, UK: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8.
- Ethier, W. "Internationally Decreasing Costs and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1979.
- Evangelista, R., and Savona, M., "Patterns of Innovation in Services: The Results of the Italian Innovation Survey," Paper presented to the 7th Annual RESER Conference, Berlin, October 8–10, 1999.
- Ferto, I. and L.J. Hubbar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 Food Sectors", *World Economy*, Vol.26, No.2, 2003.
- Fisher. Allan G.GI, *The clash of progress and security*, London, 1935.
- Fixler, D. J. and D. Siegel,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10, 1999.
- Freeman. R. B, "Are your wages set in Beijing?," *The Journal of*

-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3, 1985.
- Fuchs. Victor R., "Economic growth and the rise of service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No.486, 1980.
- Furino, Antonio, e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Global Econom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 G. Haberler, "Comparative Advantag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Trade," *The International Journal Agrarian Affairs*, May 1964.
- Greenaway, David, R.C. Hine, and C. Milne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Horizontal and Vertical Trade in the UK,"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30, 1994.
- Grubel, Herbert G. and Lloyd, P.J,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Macmillan, 1975.
- Guerrieri Paolo and Valentina Meliciani,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The interdepende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producer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16, 2005.
- H. Pack, "Endogenous Growth Theory: Intellectual Appeal and Empirical Shortcomings," *Jouranl of Economic Perspectives*, Winter 1994.
- Heckscher, E.F.,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Ekonomisk Tidskrift*, 1919.
- Helen V. Milner and David B. Yoffie, "Between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strategic trade policy and a theory of corporate trade dema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issue 02, 1989.
- Hirst, P.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Nation

- State," *Economy and Society*, Vol.24, No.3. 1995.
- Inman, R. P.,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prospects an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5.
- Irwin, D. A., "The United States in a New Global Economy: A Century's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96.
- Keesing, D., "Labor Skills and Comparative Advanta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6, 1966.
- Kenen, P., "Nature, Capital and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3, 1965.
- Kleinknecht, A. and J. Wengel, "The Myth of Economic Globalis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2, No.5, September, 1998.
-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1979.
- _____, "Does the new trade theory require a new trade policy?," *the world Economy X V*, 1992.
- Lancaster, K., "Intra-Industry Trade under Perfect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0, 1980.
- Leontief, W., "Domestic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The American Capital Position Re-Examine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97, 1953.
- Loertscher, R. and F. Wolter,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 and Across Indus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16, 1980.
- Lucas, R. E. ,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une 1998.

- Ma, Hao, "Competitive Advantage and Firm Performance," *Competitiveness Review*, Vol.10, No.2, 2000.
- Marshall, J. N., and Wood, P. A., *Services and Space: Key Aspects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New Yor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995.
- Milner, Helen and David B. Yoffie, "Between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Strategic Trade Policy and a Theory of Corporate Trade Dem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 1989.
- Nurkse, R.,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in R. Nurkse, ed.,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Oulton, N., "Must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Vol. 53, No. 4, 2001.
- Porat, M. U., "The Information Economy: Definition and Measurement,"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Special Publication*, 77-12(1), Washington: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1977.
- Posner, M.V.,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ical Change", *Oxford Economic Papers*, Vol.13, 1961.
- Porter, M.E., *The competitive Advantage*, NY: The Free Press, 1985.
- Raa, Thijs and Edward N. Wolff, "Outsourcing of services and the productivity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in the 1980s and 1990s,"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2000-32, Tilburg University, 2000.
- Ricardo, D.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i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Piero Sraffa with

- M.H.Dobb(ed.), 11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17.
- Richardson, J. David, "The Political Economy of Strategic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1990.
- Romer, P.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ober 1986.
- Rowthorn, R. and R. Ramamswamy, "Deindustrialization-its causes and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97-42, 1997.
- Smith, A.,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 The Morden Library, 1937.
- Steuart, Sir J.,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A. Miller and T. Cadell, 1776: a revised version was published in the first 4 vols. of *The Works, Political Metaphysical, and Chronogical*, of the late Sir James Steuart, 6 vols., London: T. Cadell and Strand, W. Davies(1805); reprinted, New York: Augustus M. Kelly, 1967.
- Sutcliffe, B. and A. Glyn, "Still Underwhelmed: Indicators of Globalization and Their Misinterpret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31, No.1, 1999.
- Sutcliffe, B. and A. Glyn, "Still Underwhelmed: Indicators of Globalization and Their Misinterpret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31, No.1, 1999.
- Tyson, Laura D.,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aternational Trade in the Pr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66.
-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

- 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30, 1991.
- Wade, R., “Globalization and Its Limits: Reports of the Death of the National Economy are Greatly Exaggerated,” in S. Berger and R. Dore eds. 1996.
- Welch, L.S. and R. Loustarinen, 'Internationalization: evolution of a concept', in P.J. Buckley and P.N. Ghauri(e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rm: A reader*, London:Dryden, 1988.
- Wilfred J. Ethier, “The Theory of Trade Policy and Trade Agreement: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3, 2007.
- Wolfi, A.,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OECD, 2005.
- Wood, A., “How trade hurt unskilled worker,”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3, 1985.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57378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조인택 한문: 曹仁澤 영문: Cho, In-Taik				
주 소	광주 동구 서석동 375 무역학과실				
연락처	E-MAIL : woolji10@nate.com				
논문제목	한글 :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Services Industr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20010년 2월

저작자: 조 인 택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